# 성숙한 노년형성: 새 노인 목회전략
# COMING OF AGE: NEW MINISTERIAL GERONTOLOGY FORMATION

By

Jae Won Cho

A DEMONSTRATION PROJECT

Submitted to
New York Theological Seminar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DOCTOR OF MINISTRY

Fort Lee, New Jersey

2012

ABSTRACT

COMING OF AGE: NEW MINISTERIAL GERONTOLOGY FORMATION

By

Jae Won Cho

We do not comprehend what we doing or recognize what we produce through our overruled society and mass productive economy. Capitalism worship success and power as their gods, therefore capital society are ruled by power, wealth and authority. Even humanös worthiness is measured by usefulness, productivity, power and newness. In proverb said, things are better new one, but friend are better old friend. In society we do not acknowledge this golden proverb that our elderly is better and good, rather capitalistic value pervades and permeate society. Elderly become invisible in our society even they are exist. And their experience and knowhow which gained through life long that is treasure and wisdom for our trouble filled community. It will be abandoned and neglected as worthless. Under such circumstances, many exploited poor and aged people accepted their failure as wrong not because of the right and the justice but because of their lack of power to express their will and make.

All human being getting old, but it means not getting uselessness. We, all, are getting old, without exception. If we are not value our elderly peopleös matured experienced worthiness that would be beneficial for our society and development that

will be self-degradation and our societyǿs ignominy. If we ignore elderly people that means ignore ourselves, and disrespect their life and maturity that will come around to us. It is not just abandonment of a certain group of people but debases of our own life and decency and devalues our own society; for we are all have same destiny that is getting old.

When a man getting old, their physical health may be getting lose its strength but mentally, emotionally, and spiritually have matured and experienced wisdom and understanding that is precious discernments are accumulated in their life and in their existence. If we abandon our own value and worthy, especially old aged our seniorǿs experienced understanding and wisdom that stored in their heart and mind we are sapping our creditable and dependable assets and property of meritorious worthiness of our society.

This study will expose the lack of awareness of aged peopleǿs sufferings and social and political abandonment. Not only un-awareness of golden experience but also matured values which comes from their long life will be discussed in this study. Through Biblical, theological and socio-cultural aspect, I want to reveal our societies misbehave to elderly and how undervalued them. As well as what has done to elderly in our community and what is going to come to us as we behave toward our elderly who are our future.

Advanced aged group people would be our societyǿs treasure and back bone of social flexibility from social fluctuation and instability. Their experience and hardship in the journey of life and social tribulation cultivated their heart and mind to adjust in most difficult trouble and find wisdom to harmonize with it. We need their experience and wisdom and that is our great resource for the common-wealth.

In this study I tried to find out our social consensus and public concurrence that affect our thinking and as a result how it damaged our social situation and harmed ourselves. According to Merriam-Webster dictionary ñ**age•ism:** prejudice or discrimination against a particular age-group and especially the elderly.ò It shows that there is prejudice and discrimination toward elderly, and it was widely accepted. As open secret, people have prejudice and discrimination to elderly. It has been affected greatly to all social-members, especially to all elderly and it was affected social disability to understand and accept elderly as our own treasure and precious property. These kinds of prejudice must be corrected and our value must be esteemed for we are all created by God and with His image.

I endeavor to suggest in this study that church should do something to regain the worth and significance of elderly. Elderly, they can be a coach and mentor for they have long-life experience and understanding. They can be a challenger of redeemed ministry and guider of each generationôs reconciliation. They can be renovated as roll model of redeemed community in the mist of carnal society. If we abandon our old aged generation and follow false images which give us so called technically advanced and economically blessed modern society, this will soon result in us being in the same situation where the old-aged stand today.

Godôs purpose in the process of aging is to bring you to ***spiritual maturity*** through deepening your faith and developing your awareness of and dependence on the abiding presence of Christ within you.

*"Until we all reach unity in the faith and in the knowledge of the Son of God and become mature, attaining to the whole measure of the fullness of Christ." (Ephesians 4:13)*

Elderly could be our role model by their wisdom and understanding which gained by their long-life and difficulties that they experienced. They are not subordinate being, but they are our precious part and their value must be verified by their participation and leadership which we should focus on it. They understand what they should do and responsibility but social consensus and public concurrence that affect our thinking and prevent them join together build better society and separated them from our sight. We should find solution and we have to live together and build society together. That methodology and concept refreshment for live together with elderly and utilize elderly specialty and potential that is my best concern in this study.

오랫동안 기다리고 지지해준

사랑하는 아내 제미경에게 이 논문을 바칩니다.

ACKNOWLEDGMENTS

참으로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본인도 지치고 주변에서도 지쳐있었던 기간이었습니다. 마침내 늘 마음 한 구석에 부담으로 자리잡아 있던 문제를 드디어 해결하는 순간이 오게 됐습니다.

그 동안 실망만 안겨드렸던 백창건 교수님께 너무 죄송했습니다. 끊임없이 당근과 채찍으로 이끌어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늘 격려를 아끼지 않았던 동기 졸업자들, 김용립, 박상천, 구미리암, 서행자 박사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목회학 박사과정 3 년동안 후원해 주셨던 주선영 목사님, 베드포드파크 교회도 소개하시고 격려해 주셨던 장화인 박사님, 목회학 박사 3 년 과정 속에서 많은 도전과 용기를 주셨던 차원태 교수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 목 차

# 표 목 차

# I. 서론

## 1. 배경 소개

에셀교회는 뉴저지 버겐 카운티, 포트리(Fort Lee, NJ)에 소재하고 있다. 포트리는 뉴저지 주에서 한인들이 많은 거주하고 있는 타운이다. 뉴욕과 뉴저지의 경계를 이루고 있는 허드슨강을 맨하탄과 연결시켜주는 조지 워싱턴 다리를 건너서 있는 첫 뉴저지 타운이 포트리이고, 서쪽으로는 레오니아와 잉글우드가 있고, 동남쪽으로는 팰리세이즈 파크와 클립사이드 파크를 경계로 하고 있으며, 북쪽으로는 잉글우드 클리프가 있다. 포트리는 2010년 인구 센서스국 조사에 의하면 한인이 8318명 거주하고 있다.[1] 포트리의 인종분포는 주로 이탈리안들과 유태인들과 아시안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백인의 비율은 53.5%를 이루고 있고 아시안 인구 38.4%중 한인들의 비율은 23.5%로 매년 증가세에 있다.[2]

에셀교회는 2006년에 몇 명의 성도들이 모임을 시작한 후 2007년 4월에

---

[1]미국 Census Bureau 2010 통계자료 인용.

[2]뉴욕중앙일보 2010. 12. 14. 기사에 의하면 뉴저지의 한인인구 유입은 보다 큰 폭으로 증가세에 있다. 포트리는 미국 Census 조사에 의하면 2005-2009 년 5 년동안 29%나 늘어난 7160 명의 한인인구가 사는 것으로 조사됐다. 2009 년 현재, 포트리의 한인은 전체주민의 19.8%를 차지하고 있다.

창립하였다. 본 연구자가 개척초기부터 목회를 시작하였고, Fort Lee Athletic Club(2029 Lemoine Ave.) 건물에서 시작하여 현재 Oak Tree Center(2024 Center Ave.) 건물에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다.

현재, 재적 교인이 약 60여명으로 10% 정도의 노인 층과 50대의 장년 및 30대의 청장년이 출석하고 있다. 교인 남, 녀의 비율은 여자교인들이 약 70%, 남자 교인들이 약 30%를 차지하고 있다. 교인의 30%는 소기업을 경영하며 경제적인 수준은 대부분 중하류 층에 속한다. 교육적인 배경은 60% 정도가 대졸이며 25% 정도는 고졸의 학력을 가지고 있다. 개인적인 이민의 역사는 이민생활 20년이 넘는 사람에 약 50%가 되며, 5년이하가 약 25% 정도이다.

에셀교회는 목회현장에서 구성원들의 힘을 개발하여 창조적으로 활용해야 하는 문제가 중심과제이며, 이 문제를 본 논문에서는 노인의 문제에 초점을 맞춰 접근하고자 한다.

최근 에셀교회의 추세는 안정을 추구하는 시기에 접어들고 있다. 교회가 정착되고 체계화되어 교인 수가 많아지면서 교회 구성원들은 인맥관계 및 친교를 통하여 좀 더 밀접한 유대관계를 원하는 성향이 생겼다. 이러한 현상은 자연적으로 공동체 내부에서 그룹이 형성되면서 공동체 안에 발생된 긴장과 갈등이 해소되는 계기가 되었고 새로운 교회로서 탈바꿈되게 하는 동기를 제공하였다. 본 교회에서 노인들의 문제는 자녀의 양육을 위해 초청된 경우와 가족이민을 통하여 적응해온 두 부류로 나누어져 있으며 이러한 노인들에 대한 실제적인 대안과 프로그램

모색이 시급한 실정이다. 특히 노인들의 위치와 역할에 대해 구체적인 진단과 전망이 필요하며, 적극적인 의사소통을 통하여 교회생활과 이민사회 속에서 노인들의 자리매김이 요구된다.

## 2. 문제제기

노인의 역할변화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위축되고 축소되어 간다. 노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제한되고 육체적 약화로 인하여 할 수 있는 일들이 적어지면서 활동반경이 줄어들게 되어 스스로 자기 영역 안에 머무를 수 밖에 없다. 노인들의 인생 경험은 세월의 풍파를 겪어내야만 얻을 수 있는 값진 것이다. 한 사람의 인생이 형성되고 최고의 단계에 오른 시점에서 그 경험과 지혜가 활용되지 않고 사장된다는 것은 무지중의 무지이며 인간에 대한 예의 또한 아닐 것이다.

본 연구자는 노인의 인생경험을 교회를 통하여 함께 나누며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는 가운데 인생의 멘토와 코치로서의 그들의 자리매김이 주어진다면, 노인들에게는 남을 돕는다는 기쁨과 보람을 얻을 수 있고 도움을 받는 사람들은 새로운 인생의 도약을 바라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 3. 연구목적 및 방법

본 연구는 노인들의 경험들을 점검하면서 교회 내에서 행해지는 훈련을 통하여 노인 스스로의 인생을 되짚어 보고 신앙적으로 변화되어가는 과정을

다룸으로써 신앙 안에서의 진정한 변화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부름 받은 사명자로서 지난 세월 자신들을 훈련시키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깨닫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살리는 하나님의 지도자로서, 화해자로서, 멘토로서 코치로서의 노인들의 역할을 모색하고자 한다.

특히 변화과정의 훈련을 통하여 철저한 자기반성과 삶의 원리를 신앙훈련을 통하여 점검하고, 새로운 임무를 부여 받은 쓰임 받는 일꾼으로서의 역할을 모색하고자 한다. 그 동안 교회 내에서 실시해온 훈련을 통하여 대책과 방법을 강구하여 실제적인 변화과정을 짚어보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노인들의 활동과 역할에 있어서 연령에 따라 신체적 정신적 차이가 크기 때문에 활동이 가능한 65 세부터 75 세까지의 초기 노인(Elderly)을 중심으로 연구하고 적용하고자 한다. 이 연령대의 노인을 역할 변화에 따라 연령계층간 대화자, 화해의 대행자, 도전자로 설정하여 나이에 따르는 능력감퇴와 심신장애를 극복하고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활동적인 생활을 제공할 수 있도록 대안을 찾고자 한다.

## II. 노년의 이해

### 1. 노인의 어원적 고찰

하나님과 함께 하는 노년의 삶은 결코 인생의 황혼기가 아니며 소외와 슬픔과 상실의 시기가 아니다.[3] 노년의 인생은 생물학적으로 노쇠해 지지만 신학적으로는 오히려 새로운 ó속 사람ô의 생명이 약동하고 날로 새로워지는 시기로 파악된다. 노년은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증언하며 앞으로 살아야 할 사명이 있는 시기이다.[4] 흰머리 노년은 슬퍼하고 기피할 것이 아니다. 오는 백발을 막아보려는 생각도 부질없는 것이며, 백발을 검게 물들이는 것도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ó젊은이의 자랑은 힘이요, 노인의 영광은 백발이다.ô(잠언20:29) 구약성경은 60대 노인을 시파투(wool)라 부르며 80대 노인을 시부투(old age)라 하고 90대 노인을 릿투투(extreme old age)라 부른다.[5]

---

[3]김중은, *한국교회와 노인목회*, ñ성경에서 본 노년과 노인의 이해ò(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5), 50.

[4]Ibid.

[5]J. G. Harris, Old Age. In D. N. Freedman (Ed.), . *Vol. 5*: *The Anchor Yale Bible Dictionary* (D. N. Freedman, Ed.) (New York: Doubleday, 1996), 11.

노인의 지혜자로서의 역할은 대표적으로 구약시대의 ó장로ô의 직분으로 나타난다. 장로라는 용어를 히브리어로는 ó자켄ô이라고 하는데 그 본래의 뜻은 노인의 얼굴에 있는 긴 수염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장로란 연령이 높고 인생의 경험이 풍부한 지도자를 일컫는 말이다. 성경문화권에서 장로는 가족과 공동체내에서 일어나는 시시비비를 가려주고 충고와 권면을 통하여 올바른 삶을 살도록 하는 지도력을 발휘하였다.(신21:2-6, 22:15-18 25:7-9)

1) 구약

구약성경 안에서 노인과 관계된 인용구들이 약 250군데 있지만 나이와 나이 먹어 감에 대한 인류학적인 설명이 명백하거나 체계적으로 되어 있지는 않다. 노인에 해당하는 구약의 히브리어 용어 가운데 가장 일반적으로 쓰이는 것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6]

① 자켄 (ֿ ˩ ʕ)은 수염이 희다 는 뜻으로 60세 노인을 칭하는 말이다. 이 말은 성경에서 자주 언급되는데 일반적으로 노인을 지칭하여 쓰여지는 것으로 연수를 다한 사람, 나이 많은 아버지란 의미로 쓰여진다.(창48:10, 삼하 19:32, 욥 12:20, 32:9, 시 72:18)

② 세바 ( ˢ × ˘ )는 ñ 흰머리ò 란 뜻으로 70대 노인을 가리켰다. 백발이나 은발의 사람은 정말 ñ늙다ò란 뜻이 있다.(창 15:15, 왕상14:4, 시76:81, 삿 8: 32, 호 7:9 )

---

[6]J. G. Harris, 10.

③ 야시스(˘ ˘ ㅓ)는 80대 노인을 가리켰는데 ñ후들린다 ò 는 뜻으로 나타났다.( 욥 15:10, 29:8 )

그러므로, 구약 성경을 중심한 히브리어에서는 주로 노인을 모발 및 수염이 희어지고 기력이 쇠퇴하여 지는 60-80대를 지칭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신약

신약 헬라어에서는 노인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① ñ케론ò(ɔǓ̊ɟ ɤ ɜ)[7]은 자녀 출산이 불가능한 늙은이로 표시했다.(요3:4)

② ñ케라스ò(ɔȡɟ Ǔů)는 늙은 나이로 나타났다.(눅 1:36)

③ñ프레스부테스ò(´ɟ Ǔ̊ıɓgǕ̋ɖů)는 늙은이 또는 연장자의 뜻으로 나타내었고(눅 1:8, 딛 2:2 ), 고령으로 인하여 자녀 생산 능력이 없는 생리적 노령과 연령적 연장자를 말하고 있다.

## 2. 노인의 성경적 표현

성경에서 노인에 대한 표현은 여러 가지로 나타난다. 이러한 표현들은 노인의 특성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한다. 그 표현

---

[7]J. G. Harris, Vol2, 993.

방식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기쁨과 축복으로 표현

성경은 장수를 선한 삶에 대한 보상이요,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라고 가르친다.[8]

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와 축복으로 장수의 약속을 받았다.

② 하나님이 세우신 법도를 존중하는 자들에게 장수가 약속된다.

성경에는 ñ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ò(잠언16:31), ñ젊은 자의 영화는 그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운 것은 백발이니라ò(잠언20:29)고 하였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노인이란 영광스러운 존재인데, 백발의 면류관을 이 땅의 왕에게서 받을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에게서 받으며, 하나님이 이를 영화롭게 하였다는 것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영광이 백발로 나타나며, 거기에서 참다운 인생의 과정이 드러난다. 그르므로 노인의 시기는 하나님께로부터 영광을 받은 시기이며, 참다운 기쁨을 누리는 때이다.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고통이나 소외의 시기가 아닌 것이 분명하다.

---

[8]창세기 15:15, 출 20:12, 잠 16:31, 잠 20:29.

### 2) 존경의 대상으로 표현[9]

성경 법전의 한 규정은 ñ너는 센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라ò(레위기19:32)고 지시하고 있다. 그리고 노인을 공경하지 않으면 반드시 그 나라에 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또한 갈대아인들의 특징인 비인간성은 노인에 대한 공경의 결여라는 사실 속에서 드러난다. 그러므로, 이러한 노인에 대한 존경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의 표현으로서 종교적 삶에 있어서 본질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ñ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ò(잠언23:25)와 ñ 엘리후가 그들의 나이 자기보다 많으므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ò(욥기32:4)는 젊은이들이 노인들에게 어떻게 대하여야 하는가를 말하고 있다.

이러한 구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나, 비록 비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노인을 공경하고, 그들에게 공손하여야 할 것을 가르치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노인을 존경하여야 할 것을 가르치고 계시는데 ñ그 용모가 흉악한 민족이라 노인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유치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ò(신28:50)라고 하였다. 즉 노인을 돌보지 아니하는 민족을 흉악한 민족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신약에서도 이와 같이 가르치고 있다 ñ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비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를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를 어미에게 하듯 하며

---

[9]레 19:32, 사 3:2, 애 5:12, 대하 36:17, 레 19:32, 욥 32:4, 신 28:50, 딤전 5:1-4.

젊은 여자를 일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참 과부인 과부를 경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저희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ò(디모데 전서5:1-4)고 가르치고 있다.

### 3) 지혜의 상징으로 표현[10]

지혜는 노인들의 오랜 경험에서 오는 것으로서 그들의 가르침에 따라 살아가야 할 것을 말하고 있다. ñ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네 아비에게 물으라 그가 네게 설명할 것이요 네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네게 이르리로다ò(신명기32:7)고 하였다. 또 ñ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행치 않겠노라 하였으며ò(예레미야 6:16)라고 하였다. 또한 ñ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며 외로운 자식의 밭을 침범하지 말찌어다ò(잠언 22:28)라고 표현하면서 노인들의 지혜로움을 말하고 있다. ñ르호보암 왕이 그 부친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가로되 너희는 어떻게 교도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뇨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 만일 오늘날 이 백성의 종이 되어 저희를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저희가 영영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이 노인의

---

[10]신 32:7, 렘 6:16, 잠 23:10, 왕상 12:6-8.

교도하는 것을 버리고 그 앞에 모셔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소년들과 의논하여ò(열왕기상 12:6-8)에서 르호보암 왕이 그 부친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의 교도를 버리고 자기와 함께 자란 소년들과 의논함으로써 나라를 그릇된 길로 인도하고 결국 쇠퇴의 길로 갔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신약에서도 동일하게 가르치고 있다.[11] ñ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ò(에베소서 6:1-3)고 하였다. 이상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노인을 공경하는 민족은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역사가 증명하는 기본적 축복의 방법이다. 노인들은 전통의 수호자로서 존경을 받으며 젊은이들은 모든 문제에 있어서 노인의 지도를 받아야 할 것을 명령한다. 모세는 그의 고별 연설에서 이스라엘은 아비와 어른들과 상의할 것을 명령한다.

경험은 귀중한 교사이며 노인은 그와 더불어 지혜와 분별력을 수반한다. 그러나, 노년이라고 해서 무조건 존경과 명예를 보증하는 것은 아니다. 반드시 고결함과 경건한 생활이 수반되어야 할 것을 말하고 있다.[12] 그리나 영도적이고 책임적인 직분들은 보통 나이가 많고 경험이 많은 사람들에게 맡겨졌음을 볼 수

---

[11] 엡 6:1-3, 신 32:7.

[12] 잠 16:31, 출 18:127.

있다. 그래서 모세는 장인 이드로에게 충고를 구했으며, 70장로들을 임명하여 그를 충고하도록 했다.

4) 소명을 받은 자[13]

ñ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ò(창세기12:1), ñ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ò(출애굽기3:10)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노년에 부르셨다.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의 인도자로 세운 것도 노년의 일이다.

5) 신체적 연약함[14]

노인은 신체적으로 연약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계속하여 사용하신다. 시편 기자는 ñ우리의 연수가 칠십이요 강건하면 팔십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 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ò(시편90:10)라고 하였다. 욥은 노인이면 기운이 빠진다(욥기17:1)고 하였다. 시편71편에 보면 노인의 외침이 있다. ñ 나를 늙은 때에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한 때에 떠나지 마소서ò(시편71:9), ñ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수가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

[13]창 12:1, 출 3:10.

[14]시 90:10, 시 71:9, 시 71:18, 사 46:4

버리지 마소서ò(시편71:18)라고 하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원망으로 사는 당신의 백성에게 연약한 중에서도 축복하시고 그들을 사용하심을 볼 수 있다. ñ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안을 것이요 품을 것이요 구하여 내리라ò(사46:4)고 하였다. 하나님께서는 노인의 신체적 연약함을 통하여서도 그들을 사용하신다. 아브라함이 고향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심을 받은 것도 노인이었을 때이다.

### 3. 노년기의 한인노인

#### 1) 노인 및 노화의 개념

1944년 영국에서 Gerontology라는 용어가 제창된 이후 노년학에 대한 연구와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대되어 왔다. 전 생애 발달 면에서 볼 때 노년기는 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해야 하는 단계이면서도 고통이 따르는 단계이기도 하다. 노년기의 문제를 흔히 4중고(빈곤, 질병, 역할상실, 고독)라 일컬어지지만 역사적으로 현대사회처럼 이 네 가지 고통이 심화된 적은 없다.

노인이 되면 크건 작건 간에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대개 능력의 감퇴가 따르게 되며, 심신 양면에 걸쳐 장애가 따른다. 다만 그것을 어떻게 하면 최소한으로 막을 수 있으며 노인이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가능한 생명력과 활동력을 정상적이고도 오래도록 유지할 수 있게 하느냐 하는 것이 노인학의 초점이 되

고 있다.[15]

1984 년 미국 상원 ó노화 특별위원회ô에서 내린 노인에 대한 정의[16]에는, 55 세 이상을 óOlder populationô, 65 세 이상을 óElderlyô, 75 세 이상은 óAgedô, 85 세 이상은 'Very Oldô로 구분되어있다. 이런 구분은 연대기적 연령이며 행정적인 목적으로 구분한 것이다. June Hunt 는 65-80 세까지를 인생의 가을로 규정하고 80 세 이상을 겨울로 구분하였다.[17] 본 논문에서는 65 세 이상의 노인을 역할 변화에 따라 연령계층간 대화자, 화해의 대행자, 도전자로 규정한다.

오늘을 사는 한인노인들은 어떤 연령층보다도 급격한 생활변화를 체험하였다. 서구문명이 유입되는 시기에서 일제침략으로 인한 민족문화말살 시기를 거쳐 해방 후 본격적인 서구문화의 수용시기를 몸으로 체험한 분들이다. 젊은 때는 노인들을 공경하고 대접했는데 정작 자신들이 늙어서는 거꾸로 젊은이를 우대하는 시대에 산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미국으로 이민온 한인노인들의 삶은 한국의 노인들보다 더 급속도로 생활변화를 실감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

[15]김성순, 노인복지론,(서울:이우출판사, 1981)

[16]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1986, Vol. 27(December), 332-345에서 재인용. *U.S.* Senate *Special* Committee, 1984*, 13.*

[17]June Hunt, *Aging: Wisdom for the Winter Years*(Dallas TX: Hope for the Heart, 2008), 3.

여기에 덧붙여 언어와 사고방식의 차이는 한인노인들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고 미국정착에도 어려움을 주고 있다.

2) 신체적, 생리적 측면

노화는 ñ시간이 흐름에 따라 유기체의 세포, 조직, 기관, 또는 유기체 전체에 일어나는 점진적인 변화ò라고 일반적으로 정의할 수 있다.[18] 노화는 인간의 정상적인 성장과 발달과정 전체의 한 부분이며 세가지 측면, 즉 생물학적 노화, 심리적 노화, 사회적 노화에서 변화과정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생물학적 노화는 신체의 기관과 체계의 구조 및 기능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변화하는 것을 의미하고 심리적 노화는 축적된 경험에 의한 행동, 감각, 지각기능, 자아에 대한 인식 등이 시간의 변화에 따라 변화하는 것을 의미하며, 사회적 노화는 생활주기를 통하여 일어나는 규범, 기대, 사회적 지위 및 역할의 변화 등을 의미한다.[19]

노인들이 활동에 제약을 받는 것은 노화에 따라 질병의 발병률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질병은 일시적이고 속히 치료될 수 있는 급성질병과 장기적이고 치료나 회복에 오랜 시간이 걸리거나 완치가 힘든 만성질병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노인이 될수록 갑자기 발생하여 짧은 기간 동안 치료나 회복이 가능한 질병은 줄어들고 천식, 고혈압, 당뇨병, 심장병, 관절염 같은 장기간의 치료와 조심을 요하는 질병들이

---

[18]장인협, 최성재 *노인복지학*(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1992), 43.

[19]Ibid., 43.

많이 생긴다.

3) 성숙한[20] 노인연구

성경에서의 노인의 이미지는 지혜자이다. 도움제공자로서의 역할을 통하여 사회에서와 가정에서의 지위가 확고하였다. 오늘날 노인은 혜택수혜자로서 사회와 가정에서 부담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시각이 노인들의 삶을 위축시키고 또한 현실적으로 어려운 환경가운데 더 이상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보다는 스스로 자족하며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마감하는 자포자기적인 삶으로 이어갈 수 있다.

노인들의 지혜는 예나 지금이나 탁월하게 사용될 수 있고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 주변에서 종종 발견한다. 문제해결의 조정자와 화해자로서의 역할이 가정이나 교회나 사회에서 충분히 발휘될 수 있을 것이다.

상처가 많았기에 상처받은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고 대안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상처 입은 치유자[21]로서의 역할도 노인들에게서만 찾아볼 수 있는 매력이다. 독일의 여성신학자 Dorothee Solle는 자신의 책 ó고난ô에서 몸소 고통을 겪어본 사람들만이 자기 주변의 고통 받는 사람들의 아픔을 제대로 인식하고 이 아픔에 반응할

[20]본 연구자가 제기하는 ó성숙한ô의 의미는 혜택 수혜자에서 도움 제공자로서의 역할의 전환을 염두에 두고 있다.

[21]Henry Nouwen 의 상처입은 치유자는 노인들의 역할을 인생경험을 통하여 증대시키고 멘토와 코치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좋은 대안으로 볼 수 있다.

수 있다고 주장한다.[22] 뿐만 아니라 기독교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인생의 아픔을 체험하고 승리하신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문제의 해답을 찾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신앙 안에서의 접근은 노인들에게 이해와 도움을 줄 수 있다.

무엇보다 먼저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려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삶의 스토리를 긍정하고 받아들여야 한다. 기독교 공동체란 상처가 치유되고 고통이 완화되기 때문이 아니라 상처와 고통이 새로운 비전을 위한 개방과 기회가 되기 때문에 치유의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리에게 확신시켜 준다.[23] 한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냐 아니냐를 측정하는 기준은 ñ그 사람이 얼마나 빨리 출세나 성공의 길에 오르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빨리 곤경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손을 내뻗느냐 하는 것ò[24]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노인들의 역할들은 막중할 수 있다.

치유의 공동체를 반드시 건강을 회복시킨다는 것과 동일시되어서는 안 된다. 치유는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포함할 수 있다.[25] 불가피한 것 혹은 어쩔 수 없는 것과 화해하는 것도 하나의 치유형태이다. 기독교적 치유는 건강의 회복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있는 그대로의 상황을 말없이 받아들이는 것이 기독교적 치유

---

[22]Donald E. Messer, *새시대 새 목회*, 이면주역(서울: 기독교 대한감리회 홍보출판국, 1990), 127. 재인용.

[23]Henri J. M. Nouwen, *상처입은 치유자*, 이봉우역(왜관: 베네딕트출판사, 1990), 94.

[24]Donald E. Messer, 107.

[25]Ibid., 137.

가 될 수도 있다.[26] 노인들의 조정자, 화해자, 치유자로서의 역할은 친히 인간이 되셔서 모든 인생의 질고와 수고를 경험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기독교적 치유교리는 물론 가정과 사회에서 보이지 않는 막강한 파워를 가져올 수 있다.

4. 한인사회에서의 노인

한인노인을 두 부류로 분류하면 첫째는1965년이후 가족과 함께 온 이민 1세 그룹으로 나름대로 이민사회에 언어나 환경에 적응이 되어 노년을 맞이한 사람들과 다른 부류는 자녀들이 먼저 이민 와서 정착하고 초청에 의해 오게 되었던 노인들의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초기 이민자 그룹으로 스스로 이민을 결정하고 가족과 함께 와서 처음부터 새롭게 시작하면서 이민생활에 정착한 노인들은 낯설고 어색한 이민생활 중에도 언어와 생활환경을 극복하고 자수성가했으며 이러한 경우, 자신의 생활 및 노후대책이 분명하여 당당한 노후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또 다른 노인들은 자녀에 의해 초청된 경우인데 생활전반의 문제들에 대해 수동적인 태도를 갖고 있으며 자녀에 의해, 자녀를 위한 생활로 전환하게 되어 집테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손주나 손녀의 돌봄 및 가사를 도와주는 형편에서 시작하게 된다. 노후대책도 불분명하여 정부에서 제공하는 혜택으로 생활하는 경우가 많다.

---

[26]Ibid., 138.

5. 2010년 센서스 통계자료

2010년 조사에 의하면 포트리 한인 거주인원은 8318명으로 포트리 전체 거주인구 35345명중 23.5%를 차지하고 있다. 아시안의 인구분포는 다음의 표와 같다.[27]

포트리의 전체 거주인구 중 아시안, 한국인 비율[28]

표 1

| | | |
|---|---|---|
| **Asian** | 13,587 | 38.4 |
| **Asian Indian** | 558 | 1.6 |
| **Chinese** | 2,653 | 7.5 |
| **Filipino** | 410 | 1.2 |
| **Japanese** | 1,302 | 3.7 |
| **Korean** | 8,318 | 23.5 |
| **Vietnamese** | 35 | 0.1 |
| **Other Asian [1]** | 311 | 0.9 |

[27]포트리의 한인인구는 아시안 인구 전체 61%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28]미국 Census Bureau 2010 통계자료 인용.

포트리의 노인인구 비율[29]

표 **2**

| | | |
|---|---|---|
| **60 to 64 years** | 2,450 | 6.9 |
| **65 to 69 years** | 2,040 | 5.8 |
| **70 to 74 years** | 1,709 | 4.8 |
| **75 to 79 years** | 1,506 | 4.3 |
| **80 to 84 years** | 1,270 | 3.6 |
| **85 years and over** | 1,186 | 3.4 |
| **Over 65 years** | 7,711 | 21.8 |

[29]미국 Census Bureau 2010 통계자료 인용. 포트리의 65 세이상 노인인구는 7,711 로 전체인구 35345 명중 21.8%를 차지하고 있다.

## 6. 한인 노인의 이해

한인의 전통적 가치인 효는 가족주의적 전통아래에서의 가족구성원들 사이에 밀접한 관계[30]를 통하여서 유지되어 왔다. 조선왕조 500년의 국가통치사상은 유교의 중심을 관통하는 사상이다. 국가에는 충으로 부모에는 효를 행함으로써 한 인간의 바탕을 충효로써 이루고자 한 유교적인 기본중심을 보여주고 있다.

한인사회에서 노인은 기본적으로 계급적 개념이다. 지식인, 여성 지식인, 동성 지식인이란 말은 있지만, 노인 지식인이란 말은 없다. 지식인이나 정치인, 재벌 등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은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노인이라고 불리지 않으며, 그들도 스스로를 노인으로 정체화하지 않는다. 우리는 서민에게만 노인의 칭호를 붙인다. 이것은 나이 듦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생물학적 현상이 아니라는 반증이다. 여성은 늙지만 남성은 나이 든다. 능력이 있는 사람의 연령은 나이 듦이지만, 사회적 약자의 연령은 늙음이고 추함이다. 늙음은 나이 듦에 대한 사회적 시선이다.

연령주의는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결정적인 사회적 모순이다. 매력, 열정, 가능성, 순수, 아름다움, 치열함은 젊은이만의 속성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나이 든 사람이 이런 모습을 보일 때는 ó철이 없거나 주책ô이 되어 버린다. 남성이나 젊은 여성에게는 당연하게 주어지는 권리가, 표준적 인간 범주에서 제외된 나이든 여성에게는 과도한 욕망으로 간주되어 비난 받는 일이 일상의 지뢰처럼

---

[30]성규탁, *새시대의 효*(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1995), 35.

깔려 있다. 어떤 사람의 욕망은 질문되거나 문제화되지 않지만, 어떤 사람의 욕망은 늘 해명하거나 용서를 빌거나 투쟁해야 할 과제가 된다.

연령주의는 두 가지 방식으로 작동한다. 나이에 맞게 살아야 한다는 이른바 ό생애 주기ό식의 연령주의와 나이가 차별의 근거가 되는 연소자 혹은 연장자 우선주의다. 한인사회는 ό나이에 맞는 지위ό를 갖지 못한 사람을 ό패배자ό로 간주한다. 우리는 일상에서 직업, 지위, 외모, 언어, 태도, 습관, 문화적 취향, 성생활, 결혼 등 삶 전반에 걸쳐 특정한 나이에 맞는 정상성을 요구하고 요구 받는다. 나이에 맞는 삶에 대한 문화적 규율과 통제가 워낙 막강하기 때문에 인생을 다르게 살 자유, 방황할 자유가 없고 그것은 낙오로 규정된다. 취업 시 나이 제한이 당연한 규정으로 간주되는 사회에서, 남과 다르게 사는 것은 곧 생존권을 위협하는 문제다. 나이에 따라 삶의 가능성이 체계적으로 억압된 사회, 이것은 고도로 치밀하게 조직화된 조용한 폭력이다.

인간의 나이는 임의적인 인식과 제도의 산물이다. 그것은 억압적인 제도이기 때문에 정치 경제학적, 사회 심리적인 물적 토대를 가진다. 나이가 숫자에 불과하려면, 전반적인 사회 시스템의 근본적인 변화가 동반되어야 한다. 나이에 따라 인간의 권리가 다르지 않다면, 노후(老後)라는 말부터 없어져야 한다. 노전(老前) 생활이 따로 없듯이, 노후 생활도 따로 없다.

인생의 주기는 동양 고전인 공자의 논어[31]에 나와 있듯이 60세를 순하게 들

---

[31] *논어* 위정편 4 장에 15 세에 학문에 뜻을 두고 30 세에 독립했고 40 세에 유혹받지 않았으며 50 세에 천명을 알았고 60 세에 말이 순하게 들렸으며 70 세에는 어떤 일을 해도 도에

는 나이로 70세를 어떤 일을 해도 도에 어긋남이 없는 나이로 규정하였다.

Erickson의 생애주기 이론에서 60세 이후를 성숙후기로 분류한다.[32] 인생의 마지막 단계에서는 활발한 사회적 참여로부터의 사회적 유리 또는 새로운 생활 속 역할에 대한 재개입 등이 주요한 문제가 된다. 이때는 개인의 활동이 위축되는 면도 많이 있으나 생물학적, 사회적으로 불가피한 상실에 대한 적응과 보상 등이 커다란 과제이다.

한국에서의 생애주기는 김종서, 남정걸, 정지웅, 이용환 등이 평생교육적 관점에서 한국인의 발달과업을 규정하려고 시도하였다.[33] 60세 이후를 제 7단계로 보았으며 지적, 정의적, 사회적, 신체적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ㄱ. 지적 영역

- 세대차와 사회변화를 이해하기
- 은퇴생활에 필요한 지식과 생활을 배우기
-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대한 최신 동향을 알기
- 건강증진을 위한 폭넓은 지식을 갖기

---

어긋남이 없었다 라고 적고 있다. 원문으로 보면 子曰 吾十有五而志于學하고 三十而立하고 四十而不惑하고 五十而知天命하고 六十而耳順하고 七十而從心所欲하야 不踰矩라.

[32]윤진, *성인 노인 심리학*(서울: 중앙적성출판사, 1985), 42.

[33]Ibid., 43.

ㄴ. 정의적 영역

- 적극적으로 일하고 생활하려는 태도를 유지하기
- 취미를 계속 살리고 여가를 즐겁게 보내기
- 정년 퇴직과 수입감소에 적응하기
- 소외감과 허무감을 극복하고 인생의 의미를 찾기
- 배우자 사망후의 생활에 적응하기
- 동료 또는 자신의 죽음에 대하여 심리적으로 준비하기

ㄷ. 사회적 영역

- 동년배 노인들과 친교를 유지하기
- 가정과 직장에서 일과 책임을 합당하게 물려주기
- 가정이나 사회에서 어른 구실을 하기
- 자녀 또는 손자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ㄹ. 신체적 영역

- 줄어가는 체력과 건강에 적응하기
- 노년기에 알맞은 간단한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기
- 건강유지에 필요한 알맞은 섭생을 하기
- 지병이나 쇠약에 대해 바르게 처방하기

한인 노인들 또한 개인의 인생주기와 역사적 흐름이 유사하다. 해방 전에 출생하여 해방 이후에 성장해왔고 한국전쟁을 통하여 공산주의의 실체를 청년기에 직접 체험한 세대이다. 뿐만 아니라 4.19와 5.16 등 혁명의 소용돌이 속에서 사업을 운영해 나가야 했으며 70년대의 국가 사회발전의 주역으로 활동해 온 경험을 서로 공유하고 있다. 이러한 동일한 동시집단은 역사적으로도 거의 비슷한 경험을 하며 살아가게 된다. 그러므로 그들의 가치관, 인생관 그리고 여러 가지 사회적 태도에 있어 공통점과 유사성을 가지게 된다.[34] 이러한 역사적 사건이나 시기에서의 변화로 말미암아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있어서의 성인기와 노년기의 경험이 달라지게 된다. 이러한 개인의 발달과정과 동시집단의 효과 및 역사적 시기의 효과가 혼합된 문제는 세대차이의 커다란 요인이 된다.

## 7. 노인의 특성

### 1) 노인과 가족관계

과거 한국사회에서의 가족은 모든 사회조건이 경제적으로 자급자족할 수 밖에 없었으며 대부분의 경우 가족의 기능과 관계는 주로 농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35] 농사는 분업화보다는 협동과 협조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가족 전체가 공동으로 일하는 과정에서 응집력과 소속감이 생기고 개인보다는 가족 전체의 생계가

---

[34]Ibid., 53.

[35]송성자, *가족관계와 가족치료*(서울: 홍익사, 1995), 58.

삶의 일차적 목표였다.  부모는 농사경험을 통하여 얻은 농사에 관한 지식과 기술, 생산수단, 가산 및 토지 등을 자식에게 물려주었다. 자녀들은 부모에게 의존하여 사회화 교육, 사회적 생존방법과 기술, 사회적 지위 등을 획득하게 되므로 자연스럽게 부모에 대한 효도가 유도되었다.[36] 그러나 현대사회는 산업화뿐만 아니라 사회적 심리적 변화의 측면에서도 변화를 가져왔다. 물리적 환경,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생활형태, 세상을 보는 견해, 일상생활 양식, 가족생활의 정서적 측면과 개인의 심리적 측면에 영향을 주었다.[37]

산업화가 가족에 미친 영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도시화와 지역적 인구이동을 가져왔고 둘째로 핵가족화와 소가족화가 이루어지고 셋째로 배우자 선택이 가족중심보다 개인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넷째로 가족 경제적 기능이 생산적 기능에서 소비적 기능으로 변화가 되었다. 다섯째로 개인은 각자 능력과 성취도에 따라 평가를 받으며 계속적인 교육과 훈련을 필요로 하는 산업산회는 개인뿐 아니라 가족구조의 변화를 강요하고 있다.  더욱이 가족구조, 가족관, 거주형태와 가치관 등이 변화함에 따라 부모와 자녀간의 관계 유형도 변화되었다. 핵가족화, 평균수명의 연장, 일상생활 양식의 변화 등은 노부모

---

[36]Ibid., 58.

[37]Ibid., Arlens Skolnick and Jerome Skolnick, *Family in Transition*(Boston: Little, Brown and Company, 1977), 10 에서 재인용.

를 부양하거나 보호하는 문제와 노후대책 등의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38]

가정 내부에서의 세대간의 분리와 노인들에 대한 부적절한 사회적 재정적 지원은 부모가 퇴직하고 손자녀들이 자라났을 때 부모와 자녀가 서로 융합하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 이러한 어려움은 경제적인 것에 의해 초래된다기 보다 사회, 심리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된다. 왜냐하면 부모와 자녀들은 같은 신념과 감정을 공유하지 않기 때문에 기술과 사회의 변화, 부모와 자녀간의 직업적인 차이, 교육, 주택, 직업의 전문화, 사회적인 압력 등이 세대간의 정서적인 거리를 만드는 원인이 되는 것이다. [39]

수년 동안 일을 해온 사람은 만족스럽지 못한 조건 속에서 오랜 시간 동안 업무에 시달려온 육체적 노동에서 해방되었을 경우 생기는 것이 좌절감이나 나태함이라기 보다는 여가를 더욱 즐기고, 친척과 가까운 관계를 갖고, 건강도 더욱 좋은 상태를 유지한다. 그러나 은퇴를 하게 되면 일 자체와 돈을 놓치게 되고 함께 일하던 동료와 무엇인가 사회에 쓸모가 있다는 의식을 상실하게 된다. 그러나 적응의 태도와 형태가 은퇴기동안 급속하게 변화한다. 시간이 흘러감으로써 일어나는 것은 나이가 아니고 개인차에 따르는 생물학적, 심리학적 변화이다. 65세를 넘어서까지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은 은퇴한 사람보다 덜 외롭고 적응을 더 잘 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신체적인 건강과 성격적인 요인이 사기와 작업능력에 작용하고 있기 때

---

[38]Ibid., 62.

[39]D. B. Bromley, 노인심리학, 146.

문이다. 은퇴란 인생에 있어서 정상적이고 기대되는 한 단계로 이해되고 있으며, 장래를 전망하면서 미리 준비하여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단계로 여겨진다.

은퇴한 사람들의 문제는 경제적 고통을 겪지 않고 또한 고독함이나 지루함 같은 정서적인 상실감을 겪는 일없이 일자리로부터 떠난 뒤 만족스런 생활방법을 찾는 일이다.[40]

대부분의 부부는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된다. 이것은 새로운 생활의 기회가 될 수 있으며 부모로서의 책임없이 성인자녀나 손자녀와 아주 가까운 관계를 형성할 수 잇는 기회가 된다. 조부모가 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의 자녀양육의 경험을 재활용할 수 있게 해준다. 부모로서의 만족과 성취, 실망과 좌절에 대한 회상과 새로운 견해는 자신의 삶을 되돌아 보고 현실을 수용하는데 도움이 된다.[41] 특히 한인 가족구조에서는 손자녀를 중심으로 가치 있는 새로운 역할을 가질 수 있다. 사실상 조부모와 손자녀의 관계는 책임, 의무, 갈등 없이 가까운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때로는 조부모가 손자녀를 과잉보호 하거나 성인자녀의 가정교육방법과  일치하지 않으므로 갈등이나 가족문제를 유발할 수도 있다.

노인의 이민생활은 자녀에 의해 초청받아 자녀들과 함께 생활하며 손자 손녀들의 보모역할을 주로 담당한다. 가사와 자녀양육을 전담하게 되면서 일이 고되

---

[40]Ibid., 152.

[41]Froma Walsh, *The Family in Later Life*(Elizabeth Carter and Monica McGoldrick, 1980), 201.

고 집에서만 생활함으로 현지 적응이 더디고 더욱이 언어가 통하지 않아 생활의 불편이 말로 할 수 없다. 한인여성의 경제적 역할이 증대되면서 부부간의 갈등과 더불어 시부모간의 갈등이 존재한다.[42]

가족과의 관계도 손 자녀들이 말 못하는 조부모를 무시하거나 세대감을 느껴 멀리하게 되면 그 때부터는 가사도우미로 전락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손 자녀들이 중고등학교에 들어가게 되면 보모 역할이 축소됨으로 인하여 역할 상실로 인한 자신의 위치가 불안하게 되고 대우받던 자리에서 불편한 자리로 이동하게 된다. 이 때부터는 노인아파트를 신청하여 독립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게 된다.

이러한 세대간의 갈등의 원인들을 찾아보면 노인과 젊은 세대는 그들이 속하고 있는 동시집단이 다르기 때문에 역사적 경험도 가치관도 인생관도 다르게 나타난다[43]. 그리고 인생주기의 변화에 따라 생물학적, 사회적, 심리적 특성도 달라지게 된다. 각 가족마다 자녀양육의 기본원칙과 가정의 분위기, 종교와 문화와 가치체계를 달리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세대차이가 일반적인 예상과는 달리 크게 나타날 수 있게 된다.

2) 생활만족도

노년기에서의 삶의 위기는 통합과 절망 사이의 갈등을 포함한다.[44] 은퇴로

---

[42]민병갑, *Aisian Americans*, ñKorean Americansò(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1995), 221.

[43]윤진, 245.

[44]한성열, *노년기의 의미와 즐거움*(서울: 학지사, 2000), 85.

인한 삶의 질의 저하와 건강으로 인한 활동반경의 축소는 노인들로 하여금 삶을 절망케 하고 현실의 벽을 실감나게 한다. 나이가 들어간다는 느낌은 이전과 다르게 자신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위축 되어 진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ñ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 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 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ò[45] 말씀을 철저하게 깨닫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은퇴로 인한 저소득으로 축소되는 생활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여가활동의 확대를 통하여 다양한 인간관계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기회도 갖게 된다. 환경이나 조건 등이 이전보다 열악한 반면에 현실에 대한 인정과 자족하는 마음은 고단한 상황 너머에 문제 해결을 바라보게 하고 관조할 수 있는 여유를 제공하기도 한다.

전통적으로 성공적인 노화의 복합적 기준은 다음의 7가지로부터 출발했다. 그것은 수명, 생물학적 건강, 정신 건강, 인지적 효능, 사회적 능력과 생산성, 개인적 통제와 생활만족도이다. 또한 성공적 노화에 대한 기준은 자아개념, 생활만족도, 자아 존중감과 개인적인 통제 같은 주관적인 지표이다. 이러한 주관적 지표는 객관적 상황을 그대로 반영함으로 자아에 대한 지각이 바로 삶의 질을 검증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될 수 있다.[46]

---

[45]요한복음 21:18.

[46]박재간외, *고령화 사회의 위기와 도전*(서울: 도서출판 나남, 1995), 83.

## 8. 가족 속의 노인

### 1) 노인 부양의지

한인사회에서 노인의 권위가 점차 약해지고 있지만 노인에 대한 존경은 여전히 사회적 규범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한국인은 노인과 대화를 할 때 존대말을 쓰며, 노인들에게 좋은 자리에 앉게 하며, 노인을 먼저 대접하며, 노인이 먼저 문을 나서게 하며, 노부모의 입맛에 맞추어 요리를 하며, 생신과 휴일에 노부모을 방문하고, 노인을 존경하는 사회적 노력에 지원을 하고 있다.

가족구성원들이 부모 부양에 대한 감정, 행동, 관심이 동일하고 가족의 부모 부양 책임과 범위를 규정하는 어떤 규칙이나 합의 사항을 준수함으로써 부모를 중심으로 하는 조화로운 가족관계를 이룰 수 있다. 한인사회에서는 가족관계의 통합을 매우 중요시하며, 가족관계 중에서도 부모 자녀관계가 최고의 위치를 점유하고 있다.

한국인들은 가족지향적인 성향을 가지고 부모 부양 할 의지와 가치를 견지하고 있다.[47] 그러나 변동하는 산업사회에서 생성하는 여러 가지 제약으로 말미암아 부모부양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사례가 점차로 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인들의 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점차 증대하고 있어 성인자녀와 가족의 부담이 늘

---

[47] 성규탁, 211.

고 있다. 성원들의 부모부양에 대한 감정, 행동 및 관심이 동일하고 가족의 부모 부양책임과 범위를 규정하는 어떤 규칙이나 합의사항을 준수함으로써 부모를 중심으로 하는 조화로운 가족관계를 이룰 수 있다.[48] 이 가족을 조화롭게 하면서 부모부양을 하려는 의지는 명확히 가족지향적인 성향을 나타낸다.

2) 노인들의 욕구

한국상황에서 가족이 노인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양이 국가가 제공하는 지원의 양에 비해 훨씬 많고 앞으로도 그렇게 진행될 것이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 가족의 힘만으로 포괄적인 부모부양을 할 수 없다. 가족이 안고 있는 과제는 가족과 동거하며 가족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노부모를 부양하는 데서 오는 부담과 어려움을 사회의 복지정책과 연결하여 보완하고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노부모들의 요구는 세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49] 첫째, 사회적, 경제적 원조, 환경적 안녕, 주거환경의 욕구로써의 사회적 안녕과 둘째, 생활만족도를 요구하는 심리적 안녕과 셋째, 건강상태, 일상적 활동, 영양상태가 유지되는 신체적 안녕을 들 수 있다.

---

[48]박재간 외, 292.

[49]성규탁, 213.

3) 이민사회에서의 노인들의 상황

그러나 미국에 이민 오면서 전통적인 가족제도는 환경에 의해 변화되어 왔다. 한국사회보다 보다 덜 전통적이고 부부중심의 가족개념인 미국식 가족제도의 영향으로 또한 맞벌이 생활로 자녀양육문제가 대두되면서 노인들은 보모수준으로 격하되거나 자녀들의 필요에 의한 동거가 시작되었다.

한인가정의 여성 역할증대와 더불어 남편의 역할축소는 유교적 가족제도하에서 노인을 부양하려는 의지는 찾아볼 수 없게 되었으며, 자녀양육을 위한 역할과 노인아파트 입주를 준비하는 기간 동안 노인들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때 자녀들의 재정상황 악화로 인한 일시적인 동거만이 있을 뿐이다.[50]

자녀와 별거이유와 함께 자녀와의 동거이유를 살펴보자. 노인의 자녀와의 별거이유를 들어보면 따로 사는 것이 편하고 좋다는 것이 대체적이며, 경제적 능력이 있고 신체가 건강할수록 따로 사는 것을 더욱 선호한다. 특히 미국의 한인사회에서는 노인아파트 신청 후 굳이 같이 살아야 할 이유가 없어진다. 국가에서 제공하는 각종 혜택만으로도 자녀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가족의 행사외에는 각자의 영역에서 생활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게 된다. 반면에 동거이유는 자녀양육에 부모들이 도움이 되거나 마땅히 부모들이 독립해 나갈 여유가 부족할 때 동거하게 된다. 그러나 부모가 이민생활에 익숙해 지거나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면 독립해 나가게 된다.

---

[50]민병갑 외, *미국 속의 한국인*(서울: 유림문화사, 1991), 151.

미국에서의 독거노인은 증가추세에 있다. 2000년 조사와 2009년 조사통계에 따르면 미 전역에서 독거노인은 114%로 증가하였으며 아시안의 경우 65-74세는 164%로, 75-84세는 183%로, 그리고 85세 이후는 244%로 대폭 늘어났다.[51]

이민의 경우는 다양하지만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낙심(depression)이 있다. 최남기는 이것을 두 가지로[52] 정의하고 있다. 첫째는 이민의 아픈 경험과 정신적인 혼란에서 오는 이민의 슬픔이고, 둘째는 개인의 나이와 영어의 숙달된 소통능력과 고국방문으로 인한 자기신세를 바라보는 것에서 온다고 주장한다.

---

[51]U.S. Census Bureau, Statistical Abstract of the United States: 2012 년 통계자료로 http://www.census.gov/prod/2011pubs/12statab/pop.pdf 에서 찾아볼 수 있다.

[52]Namkee G. Choi, Ed. Social Work Practice with the Asian American Elderly(Binghamton, NY: The Haworth Social Work Practice Press, 2001), 17-20.

# III. 연 구 분 석

## 1. 성서적 분석

교회는 하나님의 자유로운 선택과 부름을 전제로 하며, 이 부름은 개인의 모든 행위에 선행하여 온 백성을 상대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개인으로 구성된 백성의 공동체 전체이다.[53] 교회내에서 노인들의 활동에 대한 사역은 개인의 봉사와 활동에 국한될 수 없고 개인과 개인, 개인과 교회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살펴볼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교회는 코이노니아를 추구하며 이룰 수 있는 자리매김이 요구된다.

신약성서에서 ó코이노니아ô가 언급되는 경우는 두 가지 교제와 연관이 되고 있다. 그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한 하나님과의 교제이며 둘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간의 교제이다.[54]

신약성서에서 소개되는 성도들간의 교제에는 다양한 행위가 포함되는데 자신의 물질을 서로 통용하는 행위(행2:44,4:32)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행위(롬

---

[53]Hans Küng, *교회란 무엇인가*, 이홍근역(서울: 분도출판사, 1978), 117.

[54]이형원, *교회와 코이노니아*, ñ하나님의 백성의 코이노니아를 위한 구약성서적 제안ò, 한국기독교학교회편(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3), 129.

12:13) 다른 교회의 물질적 고난에 대해 구제하는 행위(고후8:1-5) 핍박 받는 성도들과 교회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행위(갈6:2) 주의 만찬을 함께 나누는 행위(고전10:16) 핍박에도 불구하고 함께 복음을 증거하는 행위(빌4:15) 신약성서의 코이노니아는 개개의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과 갖는 개인적인 교제나 체험을 의미함과 아울러 교회라는 공동체 속에서 행해야 할 여러 가지 책임들을 부가시키는 개념이다.[55]

구약성서에서 코이노니아 개념의 기초가 되는 것은 ό공동체 연대책임ô 정신 혹은 ό집합적인 개인ô 정신이다. 수 천명을 포함하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한 개인으로 이해하기도 하고, 한 개인을 한 공동체를 대변할 만큼 중요성을 띤 공동체적 존재로 간주한다.[56]

한인 노인들은 두 가지 그룹이 있는데 그것에 따라 각기 다른 적응패턴이 있다. 하나는 최근에 자녀들에 의해 초청된 노인들이고, 다른 하나는 초기에 이민와서 은퇴한 노인들이다.[57] 초청된 노인들의 생활은 맞벌이 부부의 자녀양육을 담당하고 있으며, 아이들이 어느 정도 성장하면서 자녀들로부터 독립하는 추세이다. 초기 이민 온 노인들은 자녀들이 성장, 결혼과 함께 가족들과 독립된 생활을 하고 있다.

---

[55]Ibid., 130.

[56]Ibid., 131.

[57]민병갑, *변화와 갈등*( New York: 1996), 85.

그러나 이들은 은퇴 후 재정능력으로 인하여 노후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과 소통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소수를 제외한 노인들은 이민생활의 적응에 필요한 교육과 훈련을 받지 못해 타 문화공간과 단절된 생활을 하고 있다. 또한 언어나 문화적인 괴리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원인으로 인하여 가족간, 이웃간의 단절이 심각한 상태에 직면하게 되었다.

커뮤니케이션이 인간의 본질에 속하는 것처럼 신앙과 신앙의 경험을 소통하는 것도 모든 종교의 본질에 속한다. 교회에 있어서 커뮤니케이션의 문제는 복음선포의 수단이나 기술 정도로 이해되어 왔다.[58] 그러나 최근에 와서 커뮤니케이션이 신앙의 본질과 신의 존재에 결부되어 있다는 인식을 갖게 되었다. 창세기의 이야기에서도 하나님의 창조와 우주적 역사적 주권은 말씀으로 이루어진다. 하나님은 피조물 아담과 하와와의 인격적 교신을 실현하였고, 그들을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여 인격적 교신의 동반자로서 혼연일체가 된 커뮤니케이션 공동체를 이루셨다. 이 공동체에서는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 사이는 물론 인간과 모든 다른 피조물 사이에 커뮤니케이션과 평화가 충만하였다.

낙원 추방이야기 다음으로 커뮤니케이션의 파괴를 말하고 있는 것은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이다. 인간 역사 속으로 오셔서 하나님은 가인을 향해 커뮤니케이션을 재개한다. ñ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ò, ñ네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저질렀느

[58]이형원, 131.

냐ò하는 질문은 가인의 표를 통하여 생명을 보호해 주시는 결과로 볼 때 화해의 커뮤니케이션을 기대하는 질문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원 역사를 마무리 짓는 바벨탑 이야기 또한 인류의 ñ언어의 혼란ò이라는 커뮤니케이션의 단절을 보여주고 있다.

성서역사 속에 등장한 소명 받은 자들은 기능적인 면에서 고찰 할 때 하나님과 인간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을 연결하는 중재자(mediator)들이었음을 시사하고 있다. 중재자 활동 역사의 절정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서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참여 행위들이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과 인류사이의 깨어진 커뮤니케이션을 하나님과 인간사이의, 인간과 인간사이의, 인간과 자연사이의 깨어진 대화관계를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구원역사를 돕는 중재자들이요 하나님의 선교의 도구들이라는 것을 밝혀주는 것이다.

커뮤니케이션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선교역사의 절정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인격 안에 성육하신 하나님의 자기겸허 사건이며 이는 동시에 하나님의 역사참여 행위의 본질을 드러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Jurgen Moltmann에 의하면 "희망의 하나님은 오시는 하나님이다(사35:4, 40:5). 하나님 자신만이 ñ오시는 분ò으로 경험될 뿐 아니라, 그의 오심을 중재하며 그의 오심에 대하여 인간을 준비시키는 희망의 담지자들도 메시아, 사람의 아들, 지혜라는 칭호를 얻는다"고 한다.[59] 희망의 하나님은 성육화의 과정을 통하여 찾아오

---

[59]Jurgen Moltmann, *오시는 하나님*, 김균진역(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6), 61.

셨다. 성육화된 몸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불가능하듯이, 교회에서도 성육화의 과정인 목회자와 노인, 청장년과 노인, 노인과 노인 상호간의 만남의 관계가 가능해야 한다. 이 만남을 통하여 실질적인 갈등처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관계적 존재로서의 인간의 ó하나님의 형상ô은 바로 하나님의 사귐의 의지에 근거를 둔 것이다.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의 조화로운 삶은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사는 삶으로 표현되고 확대되었다.[60] Martin Buber는 만남이란 나와 너가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는 것이라고 말한다. 만남이란 ó택하는 것ô인 동시에 ó택함을 입는 것ô이요, ó시킴ô인 동시에 ó쓰임ô인 것이다.[61] 나와 나에게 마주서 있는 것과의 상호관계를 포함하고 있다.[62]

이러한 커뮤니케이션은 본질적으로 코이노니아에 귀속된다. ó코이노니아ô 이야말로 하나님 나라, 메시아 왕국 그리고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의 활동 안에서 이루어지는 커뮤니온(교제)의 실체이다. 인간의 약점 때문에 코이노니아는 불완전하지만 코이노니아의 실재는 사랑의 힘으로서, 인간의 모든 적대감에 대한 도전으로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가운데에 있는 철저하고 완전한 코이노니아에 대한 약속으로서 엄연히 현존한다. 커뮤니케이션은 바로 이 코이노니아에 귀속된다. 커뮤니케이션은 바로 이 코이노니아 안에서 일어나며 그 내용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즉 복음인 코이노니아에 관한 것이다.

---

[60]김용복, *교회와 코이노니아*, ñ삼위일체적 코이노니아 교회론ò,한국기독교학회편(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3), 197.

[61]Martin Buber, *나와 너*, 표재명역(서울: 문예출판사, 1993), 22.

[62]Ibid., 26.

에큐메니칼 운동에서는 코이노니아가 나눔과 섬김의 맥락에서 논의되어 왔으며 동시에 정의. 평화. 창조질서의 보전이라는 맥락에서 논의되어 왔다.[63] 코이노니아로서의 교회는 그 자체 공동체의 고난뿐 아니라 그 밖의 모든 고통에 참여할 수 있도록 부름을 받은 것이다. 그 고통이란 가난한 자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 또 함께 상황에 있는 자들을 변호하고 보살피며, 인간사회 안에서 정의와 평화를 위한 모는 노력에 힘을 보태고, 인류의 심령에 산 희망을 유지하는 데서 오는 것이다.[64]

이러한 상황에서 ñ신학의 진정한 과제는 전통과 상황을 상호 관련짓는데 있다ò[65]는 Jurgen Moltmann의 주장은 교회의 본질적인 의미를 상기시켜 주고 있다. 왜냐하면 신학은 항상 ó대답하는 신학ô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ñ기독교 신앙은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를 통하여 존재한다. 기독교 신앙은 교회의 신앙이다ò[66]라고 볼 수 있다.

이것은 노인에게서 발생되는 상담과 멘토링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 상담과 멘토링이 목표하는 것은 사람들을 도와서 하나님과 이웃과 그리고 자기 자신을 보다 충분히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증진시키는 것이다. 그들이 겪는 갈등의 고통은 고통을 당하는 본인에 의해서 다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으나, 그것은 교회가 가진 기준에 따라, 교회의 힘에 의해서 교회의 기초 위에서 이루어져야

---

[63]김용복, 20.

[64]Ibid., 202.

[65]Jurgen Moltmann, *오늘의 신학 무엇인가?,* 차옥숭역(서울: 한국신학연구소), 96.

[66]Dorothee Solle, *현대신학의 패러다임,* 서광선역(서울: 현대신학연구소, 1993), 15.

한다.[67] 이것이 교회가 취할 수 있는 희망과 행동에 대한 최소한의 관심과 배려라고 볼 수 있다.

2. 신학적 분석

예수는 하나님 나라를 부자나 경건한 자나 지식인이 아닌 가난한 사람과 버림받은 사람과 창녀들에게 약속하였다. 예수운동의 이 포용성은 남자나 여자도, 부자나 가난한 사람도, 율법을 엄수하는 사람도, 제의적으로 깨끗하지 못한 사람도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될 수 있게 했다[68]고 Elisabeth Fiorenza는 주장한다. 그녀는 공적 남성분야와 사적 여성영역으로 갈라놓는 가부장적 분리는 여자에게 분리된 경제체제를 안겨준다. 이것은 모든 가족이 생계를 위해 일하는 이상적 아버지의 돈벌이에 종속되어 있다는 가정에 근거해 있다.[69] 고 한다.

과거나 현재에도 노인은 약자층에 속한다. 소수의 특권을 지닌 노인들도 있지만 대다수의 노인들은 자신의 경제력을 스스로 유지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노인들도 가난한 자와 약자의 범주에 포함시켜야 한다. Simone de Beauvoir는 가족들이

[67]Howard J. Clinebell, *목회와 지역사회*, 오성춘역(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4), 119.

[68]Elisabeth S. Fiorenza, *동등자 제자직,* 김영애역(서울: 태조출판사, 1993), 252.

[69]Ibid., 249.

노인에 대한 대우를 원시공동체에서 어떻게 다루었나 상세히 말해주고 있다.[70] 사회의 복지체계가 확립됨에 따라 노인이 인정받는 사회로 제도가 마련되고 있지만 아직도 노인에 대한 대우는 불리한 위치에 있다. 복지국가의 기준이 노인의 복지혜택 정도가 어떠한 가로 가늠된다 것은 새로운 경각심을 일깨운다.

유교적 전통과 문화에 익숙한 한인사회는 가부장적인 사고로서 권위를 유지하려고 한다. 그러나 은퇴 이후 중심세력 밖으로 밀려난 노인들의 현실적인 지위는 이전의 가부장적 권위의 가해자에서 피해자로 전환되고 있다. 일선에서 물러나면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실직하게 되고 능력만큼의 대우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다. 심한 경우에는 취업의 기회가 없다. 나이에 의한 차별은 나이를 중시하고 이것을 사회의 중심원리로 여기는 유교문화권인 한인사회에서 더 크게 나타난다. 이러한 차별의 결과로 인하여 노인들의 지위나 생활이 궁핍하게 되고 있다.

그러므로 가부장구조 속에서 가장 낮은 위치를 차지하는 어린이-종이 참된 제자직 공동체를 위한 제1의 패러다임이 된다. 참된 제자직이 아버지-주인이 아니라 어린이-종의 자리에 입각해서 헤아려지는 이런 상황을 우리는 역설적인 예수의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다.[71] ñ어린이-종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결로 그곳으로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ò(막10:15)

---

[70]Simone de Beauvoir, *노년*(서울: 책세상, 1994), 117.

[71]Ibid., 253.

신앙 공동체로서의 교회는 노인들의 신앙을 자극하고, 촉진시키며, 감싸주고, 이끌어 줘야 한다. 그러기에 Hans Küng은 이러한 교회를 세상에 봉사하면서 미래를 가지고 있는 교회라고 말한다.[72] 이 봉사들이 깊은 친교의 정신 속에서, 공동책임의식과 현실적인 교회를 건설하고 생활화하려는 의식과 더불어 이루어지고 있다.[73]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Jurgen Moltmann이 주장하는 대로 이제까지 주장된 절대적 정체성은 포기되고 서로 개방적인 새로운 정체성이 요구되어야 한다.[74]

복음서에는 경제적인 문제들을 포함해서 개인간의 관계 및 공동체 관계의 문제가 주로 다루어지고 있다.[75] 자기만족, 자기보존만을 위한 교회의 본질적인 관심은 모든 사람을 위한 축제와 기쁨과 웃음의 큰 기대를 남녀제자들에게 가르쳤던 예수의 복음과는 대립된다고Dorothee Solle는 말한다.[76] 그러므로 Hans Küng은 화해와 사람 섬김이 하나님 섬김에 우선한다고 한다. 하나님의 일은 예배가 아니라 사람이며, 하나님 섬김은 사람 섬김에서 그 참됨이 드러난다고 주장한다.[77]

Robert Brown은 오늘날 대부분 논쟁에서 ñ구원이 영적 부분을 주로 취급하

---

[72]Hans Küng, 45.

[73]Leonardo Boff, *새롭게 탄생하는 교회*, 김쾌상역(서울: 성요셉출판사, 1987), 55.

[74]Jurgen Moltmann, 30.

[75]Richard Horsley, *예수운동*, 이준모역(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93), 13.

[76]Dorothee Solle, 201.

[77]Hans Küng, 170-172.

며, 공동체적 실재보다 개인적 실재를 취급하고 있다ò[78] 고 비판하며 성서적인 구원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이냐는 근본적인 질문을 하고 있다. 그러나 노인들에게 있어서 공동체적 실재는 그들의 상황에 따른 분석과 대안이 마련되는 것이다. 이것은 노인들로 하여금 희망없음의 상황에서 희망에로의 전진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죌레는 신앙은 기본적으로 일상생활, 그것도 기본에 미치지도 못하는 생의 위안을 위한 것이 아니라 대안적 삶과 희망과 행동[79]이라고 주장한다. 교회의 공동체성이 결여된 이분법적 사고는 현실적 대안과 희망부재의 상황에서 제기된 해결책이라고 여겨진다. Howard Clinebell에 의하면 희망이 인간존재의 변화를 돕는데 있어 가장 무시되고 있는 힘[80]이라고 한다.

교회는 희망과 자유의 말들이 선포되고 신뢰와 신앙이 경험되며, 도덕적 연구와 교육이 행해지고, 예식과 비판이 일어날 수 있는 장소로서 존재한다. 81 Rebecca Chopp도 ñ해방주의적 기독교의 목적은 흑과 백, 남자와 여자, 부자와 가난한 자를 분리시키는 구조와 이데올로기에 의존하지 않는 새로운 인간의 길을 발견하고 창조해내는 데 있다ò고 한다. 이것은 세계 속에서 기독교인이 되는 하나의 길이며,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모든 사람들의 해방적 변혁을 위해 일하신다는 것을 경험한 신앙에 근거하고 있다[82]고 한다.

---

[78]Robert M. Brown, *영성과 해방*, 백상열역(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96), 73.

[79]Dorothee Solle, 32.

[80]Howard J. Clinebell, *부부성장과정*, 이종헌역(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7.

[81]James P. Wind, *현대성직자윤리*, 김성민.정지련 공역 (서울: 정암문화사, 1992), 101.

[82]Ibid., 95.

이러한 해방은 훈련을 통하여 교회에서 끊임없이 제기되어야 하며 훈련에 대한 결과를 통하여 계속 검증되어야 할 문제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Paulo Freire는 해방을 하나의 출산과정으로 비유하고 있다. 해방과정을 통하여 출현하는 인간은 모든 사람들이 인간화되어 압박자. 피압박자의 모순이 해소될 때 비로소 생존할 수 있는 새로운 인간이라고 한다. 달리 말하면, 모순의 해결은 더 이상 압박자도 피압박자도 아닌 오직 ó자유를 성취하는 과정에 있는 사람ô인 새로운 인간을 낳는 노력 속에서 태동한다[83]는 것이다.

이러한 ó자유를 성취하는 과정에 있는 사람ô이 되려는 노력은 파트너십을 요구하게 된다. 파트너십이란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을 해방시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통적 역사 안에 있는 새로운 관계의 초점이 있을 때 일어나는 것[84]으로 Letty Russel은 묘사한다. Martin Buber도 ó나와너ô에서 관계는 상호적이라고 하면서 내가 ó너ô에게 작용하고 있듯이 ó너ô 역시 나에게 작용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85] 따라서 Letty Russel은 인간의 삶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삶, 죽음, 부활에서 이루어진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에 의해서 새로운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와 같은 변화는 하나님과

---

[83]Paulo Freire, *페다고지*, 성찬성역,(광주: 광주출판사 1991), 33.

[84]Letty M. Russell, *파트너쉽과 교육*, 손승희역(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9.

[85]Martin Buber, 28.

의 파트너십으로서의 삶을 낳는다[86]고 주장한다.

3. 사회 경제적 분석

노년기의 생활은 일선에서 은퇴한 이후 급격한 부부간의 생활패턴의 변화를 겪는다. 또한 부부 중 어느 한쪽이 신체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면 불안한 생활이 된다. 자녀의 독립과 은퇴의 위기를 극복한 부부들은 노년기가 진행됨에 따라 배우자의 상실이라는 불안에 직면하게 된다. 현재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도 역시 이때 성취해야 할 힘든 과제중의 하나이다.

노인으로서의 자신의 새로운 역할에 대한 적응은 무시할 수 없는 노년기의 과제중의 하나가 될 것이다.[87] 자녀양육의 역할은 이미 상실되었고, 경제적인 주도권도 자녀에게 넘겨진 상태에서 이제는 상징적인 집안 어른의 지위와 조부모로서의 역할에 만족해야 할 상황을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자신을 적응시켜 가야 하는 것이다. 새로운 역할에의 적응은 그 외에 은퇴 이후의 생활과도 연결되는 문제이다. 에셀교회 교인들은 일터에서나 또는 저녁과 휴일에 가정에서 심방을 받는 형편이다. 미국에서의 경제적 여건은 한국과 비교할 때 수입에 비해 지출이 심하기 때문에

---

[86]Letty M. Russell, 26.

[87]고양곤, *한국교회와 노인목회*, ñ한국사회의 노인문제와 노인복지의 근황ð(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5), 69.

남편의 수입에 의존하는 한국의 경우와 크게 차이가 있다. 이러한 생활환경은 자녀나 노인의 문제를 방치할 수밖에 없고 해결할 수 없는 가정문제가 발생하게 한다. 따라서 교인들의 실태를 파악하고 그들의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요구된다. 그들은 신앙적 점검 없이 무방비상태로 노출되어 있으며 교회에 긴급구조를 요청하고 있다.

노인에게 있어서 일차적으로 중요한 것은 교회에서의 예배뿐만 아니라 세상한 가운데 일상 생활에서의 예배이다. 해방 신학에 의하면 예배란 기독교인의 실천을 이행하는 행위, 즉 이 세계 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화시키는 행위를 가리킨다.[88] 종교는 불확실성, 무력성, 희소성의 맥락에서 적응할 수 있게 하는 가장 기초적인 기제[89]이다. 인간은 정서적 지주를 필요로 하고 실망에 빠져 있을 때 위로를 필요로 하고, 또한 사회적 목표와 규범으로부터 소외되었을 때 사회와의 화해를 필요로 한다. 나아가서 종교는 개인으로 하여금 집단적 믿음과 의식에 참여하게 함으로 소속감을 갖게 하며 공동체 의식을 불러일으키는 역할을 수행한다.

현대사회에는 대체적으로 인생의 출생부터 죽음까지를 약-강-약의 순서로 보는 통념이 있다.[90] 즉 중년기를 인생의 최고 전성기로 보고, 이 시기를 기점으로 해서 어린아이부터 중년기 전 단계는 준비단계, 중년 이후부터 노년까지를 하향단

---

[88]James P. Wind, 102.

[89]이원규, *종교사회학*,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91), 103.

[90]정태기, *위기와 상담*(서울: 크리스찬 치유목회연구원, 1998), 228.

계로 구분한다. 그러나 이런 구분태도는 문제가 있다. 이런 식의 인생에 대한 관점은 노인을 이미 인간 가치를 상실해 버린 사람으로 간주하기 쉽기 때문이다.

노인에게서 위로와 치료의 역할은 일방적인 선포의 의미를 넘어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상담하여 상대적인 박탈감만이 아니라 보상의 수준을 넘어서 현실적인 처방까지도 포함되는 만남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교회는 노인들의 삶에 의미를 주는 장소만이 아니다. 교회는 외로움과 소외감 속에 빠져 있는 개인들을 돌보아 주고, 예수와의 연합을 약속한 다른 사람들과 지원적인 관계를 맺게 하는 가족 공동체이다.[91]

노년기에 있어서 경제적 안정과 보장은 의식주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은 물론 건강을 유지하고 여가활동을 증진시키고 노인의 지위와 자아를 유지시켜 줌으로써 결국은 성공적인 노년기의 삶을 영위하는데 가장 영향력을 미치게 한다.[92]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서든 노인들의 지위는 그들이 처한 상태(특히 경제력)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은 중요한 사실이다.[93] 교회는 사회 속에서 힘없고 약한 사람들, 스스로 자신을 위해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을 대변해야 하며, 또한 그들과 대화를 나누어야 한다. 인간은 고독한 존재가 아니라 공동체 내에서 서로 의존하고 있는 존재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개인적인 그리고 공동체적인 자유와 힘을 갖고 있다. 존엄성과 자유, 사랑과 진리와 지혜 그리고 함께 하는 기쁨을 추구할 능력이 주어져

---

[91]김형태, *목회문화*(서울: 대한 기독교서회, 1996), 189.

[92]장인협, 최성재, 142.

[93]박재간외, *고령화사회의 위기와 도전*(서울: 나남출판, 1995), 65.

있으며, 또 이러한 것들을 실현시킬 가능성이 주어져 있다. 그리고 사회, 경제, 정치적 질서들을 형성할 책임을 갖고 있다.[94]

노인들의 상황이 사회와의 지속적인 관계 속에서 발전되는데 각자가 접하게 되는 물질과 사회자원의 공급에 따라 노령화의 양상이 차이가 난다.[95] 노인들은 자기 자신들의 생활을 창의적으로 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참여할 의도를 소유한 사람들이다. 이들을 일상생활 속에서 의미를 부여하고 봉사하는데 동기를 부여하고 역할을 제공하면 노인 각 개인뿐 아니라 봉사를 제공받는 개인이나 단체에서도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고령화로 고립된 생활을 하는 것보다 가치나 믿음이나 구조적인 속성들을 통하여 노인 자신들의 스스로의 능력과 개인적 가치를 발견할 수 있다.[96]

### 4. 심리학적 분석

1951년 국제 노년학회에서는 노인 개념을 자세히 규정하였는데 "노인이란 인간의 노화과정에서 나타나는 생리적, 심리적, 환경적 행동의 변화가 상호작용하

---

[94]Hans Küng, 247.

[95]Paul K. H. Kim, *노인복지의 이해*, 문인숙역(서울: 홍익재, 1995), 31.

[96] Ibid., 32.

는 복합 형태의 과정이다라고 정의하고 있다."[97] Erikson의 8단계 이론에 의하면 노인은 60대 이후로 자아통합-절망의 시기로 구분한다.[98] 인생을 마무리하는 단계에서의 자아 통합감이란 자기의 지나간 일생에 대해 그런 대로 만족하고 최선을 다해 노력해온 의미 있는 일생이었다는 느낌을 가질 때, 달성하지 못한 일보다 이룩한 일과 행운에 대해 감사한 자세를 가질 때 생기는 것이다. Robert Havighurst는 개인과 그가 살고 있는 사회간에 어떤 형태의 상호작용이 일어나는가에 관심을 가졌다.[99] 그는 개인이 직면하는 발달과업을 시기적으로 구분하였는데 노년의 시기는 대체로 60세 이후로 성숙후기로 설정한다. 이 단계는 인생의 마지막 단계로서 활발한 사회적 참여로부터의 사회적 유리 또는 새로운 생활 속의 역할에 대한 재개입 등이 주요한 문제가 된다. 이 때는 개인의 활동이 위축되는 면도 많이 있으나 생물학적 사회적으로 불가피한 상실에 대한 적응과 보상 등이 커다란 과제이다.

노인들의 상담[100]에는 치료적 상담영역과 예방적 상담영역으로 나눌 수 있다.[101] 노년기에 이르게  되면 노인들 스스로 자신을 무기력하고 쓸모 없고 비생산적이고 사회에 의존적인 존재로 인식하게 된다.  사회적으로는 잊혀진 존재로서 공공

---

[97]정태기, 224.

[98]윤진, *성인,노인심리학*,(서울: 중앙적성출판사, 1997), 39. 재인용, Erikson, Erik H & Erikson, Joan M & Kivnick, Helen Q. *Vital Involvement in Old Age*, W.W. Norton & Company Inc., New York, 1986.

[99]Ibid., 40.

[100]노인상담의 주요 개념을 보면 자기중심성, 물활론적 사고, 주의폭, 놀이치료, 지시적 접근방법, 비구조적 접근, 인지조정요법, 정보처리이론, 초점 주목, 장지각, 불안통제 훈련, 자기표현훈련, 비합리적 사고, 자아정체성위기 등이며, 상담의 발달론적 접근을 활용할 수 있다.

[101]이장호, *상담심리학*(서울: 박영사, 1994), 456.

정책이나 문화적 교육적 사회적 혜택 등에서 소외됨으로써 노인들의 정신건강 문제가 심각해 질 수 있다. 은퇴 후 노인들의 주요 상담은 나쁜 건강, 고독감, 재정문제, 독립심 결여, 젊은이들로부터의 소외, 권태 등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노인들은 강요된 은퇴와 배우자의 상실, 자식으로부터의 거리감 등에 따라 여러 가지 심리적 고통을 겪는다. 따라서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동정이나 대우를 넘어서서 노인들에게 알맞은 역할을 모색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102]

노인문제는 노인이 살고 있는 사회환경과 생활태도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ó상실ô이라는 개념과 연계하여 설명할 수 있다. 노인이 되면 누구나 경험하는 심신쇠약은 노인을 생활의 여러 측면에서 의존하도록 만들며, 심신기능의 쇠퇴는 노동능력을 감퇴시킴으로 노인을 직업일선에서 물러나게 하여 결과적으로 소득상실을 가져오게 한다. 노인이 직업생활에서 떠나 사회일선에서 후퇴하게 되면 소득상실 뿐만 아니라 역할과 지위도 상실되어 사회심리적으로 소외되고 고립되는 상태에 놓이게 된다. 이것이 곧 노인문제가 되는 것이다.[103]

교회 내에서의 교육은 주는 자와 받는 자의 구분이 뚜렷이 나타난다. 이것은 교회의 모든 구조에 잠재되어 있으며 교회의 외형적 형태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형태를 극복하고자 하는 서로의 노력은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새롭게

---

[102]Ibid.

[103]고양곤, 129.

만드는데 기여하고 있다. 노인의 문제에서도 노인으로 하여금 노인의 상실감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목회자나 교회가 제공하는 일차원적인 단계를 넘어서서 당사자들로 극복의 의지를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 여겨진다.

인간관계를 통하여서 사람들은 희로애락을 함께 나누게 되고, 정서적 만족을 공유하게 된다. 특별히 노인에게는 교우관계가 가정생활 못지 않게 중요하다. 그러나 직업에서의 역할 상실과 경제적인 위축으로 노인들의 교우관계는 점점 줄어드는 것이 일반적이다. 우선 옛날의 직장동료들과 멀어지게 되면서 점점 부부중심의 삶이 시작된다. 부부중심의 관계가 진행되면서 신앙이나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과 새로운 친구를 사귀게 된다. 그렇지만 노인들에게서 이러한 관계가 오래 갈 수 없다.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성혼한 자식들이 가정을 떠나가기도 하고, 친지나 친구들이 사망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또한 배우자의사망도 어느 때인가는 숙명적으로 찾아올 것이다.[104]

이러한 노인문제에 대하여 교회들이 전향적인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다. 노인문제는 제공하는 차원에서만 이해하고 수용하려는 것이 아니라 Paulo Freire가 문제 제기하였던 교육에서처럼 교사. 학생이 서로 인식 가능한 대상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이것은 인식 가능한 대상이 다른 교사들. 학생들의 이

[104]정태기, 227.

해 능력에 중개역할을 하는 방식으로, 그들의 행동에 파급되어 가기 때문이다.[105] 노인문제도 이 같은 관점에서 적용 되어져야 한다. 교회는 거룩하고 세상은 악하고, 목회자는 교육하고 평신도들은 피교육자인 현실에서 노인의 문제는 또 다른 교회의 모습을 왜곡시킨다.[106]

노인문제에서도 Paulo Freire가 제기하는 문제가 적용돼야 한다. 교육자는 어른이건 아이들이건 간에 학습자들이 학교나 기타 교육장소로 가져오는 제 생활 경험들을 이용하면서 교육을 진행해야 한다. 이것은 이들 경험을 정형화함으로써 그 경험들 속에서 살고 행동하는 그들 학습자에게 주위 사물들을 다시 보도록 해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스스로 적극적으로 말하고 표현하도록 하는 조건을 제공해 준다.[107] 이에 따라 기술적인 상담이 요구된다.

목회자는 노인들에게 하나님과 동일시되어 전지전능한 것으로 생각되기도 하며, 노인들은 목회자의 작은 말 한 마디에도 변화를 보이기도 한다. 목회자는 권위와 책임을 충분히 인정하고 또 독특한 유형의 인간관계 속에서 목회자로서 도움을 주어야 한다. 노인들은 개인적인 문제들, 즉 건강문제, 재정문제, 자녀문제 등을 상의하기 위해서 목회자를 찾아온다. 목회자와의 상담은 자기 반성이 적게 요구되고 자아에 대한 변화의 요구가 비교적 적기 때문에 목회자와 상담하려는 사람들이

[105]Paulo. Freire, 123.

[106]김형태, 55.

[107]Paulo. Freire, *실천교육학*, 김쾌상역(서울: 일월서각, 1986), 22.

다른 정신병 진료기관에 가서 상담하려는 사람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108] 목회자로부터 받은 도움에 만족해서 목회자의 충고, 확신, 안위를 줄 수 있는 능력을 호의적으로 평가한다. 대부분의 노인들이 자신들의 변화를 추구하려고 하지 않고, 단지 특별한 갈등의 해소를 위해서 도움을 바라고 있다.

목회자는 평상시에 개인적인 욕구가 포함된 다양한 상황들 속에서 사람들을 만난다. 이러한 상황에서 욕구는 크고 감정은 고조된다. 감정이 비교적 잘 통제되는 상담의 경우와는 달리 폭넓은 목회상황은 목회자의 상징적 역할이 자주 관련되는 고도로 감정적인 사회적 상황의 한 가운데 있을 수 있다. 지금까지 노인 스스로 자아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을 지나칠 정도로 강조했다. 자아실현은 내적 요소보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더 경험된다.

한인교회는 유교적 의식이 교인들 사이에 팽배해 있다. 상하구별이 뚜렷하고 연령에 의한 권위의식이 존재한다. 직분자들 내에서, 직분자와 평신도들 사이에서 행해지는 주도권의 차별이 심하다. 그러므로 교회가 서로 섬기고 평등한 관계 속에서 서로를 주체자로 삼을 수 있도록 교회교육과 훈련을 통하여 바른 의식과 개혁의 의지를 다져 나가야 하며, 문제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문제를 목회자와 상의하고 능동적 해답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목회자가 움직이지 않으면 교회가 스스로 위축되는 것이 작은 교회의 실정이다. 평신도를 활용한 목회적 대안이 교회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고 건강한 모습으로 견인할 수 있을 것

---

[108]Howard J. Clinebell, *목회와 지역사회*, 오성춘역(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4), 118.

이다. 바른 교회관과 바른 평신도관은 문제 해결 받은 노인과 그 가족을 통하여 나타나는 것이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버림받은 사람이든, 여자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혹은 원수이든 중요하지 않다. 그러한 의미에서 성령체험은 어떤 의미에서 인위적이고 잠정적일 수밖에 없는 문화적 차별의 상대성을 드러냈던 것이다.[109] 개신교신학은 물론 가톨릭 신학과 경건성은 성령을 단지 구원의 영으로 파악하며, 그 장소는 교회이며, 이 성령은 인간에게 영원한 축복을 확신시킨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구원하는 이 영은 인간의 신체적인 삶은 물론 자연적 삶으로부터 분리된다[110]. 그러나 생태학적 신학, 우주적 그리스도론, 육체의 재발견을 위한 새로운 출발점들은 하나님의 영에 대한 히브리적 이해로부터 출발하며, 그리스도의 구원의 영과 창조적이며 생동시키는 하나님의 영의 일치성을 전제한다. 그러므로 마음속의 믿음과 사랑의 사귐 속에서 이루어지는 생동시키는 영의 경험은 자연히 교회의 한계를 넘어서 성령을 자연 속에서, 식물 속에서, 동물 속에서, 땅의 생태계 속에서 재발견하도록 한다.

신약성서에서 ό코이노니아ό가 언급되는 경우는 두 가지 교제와 연관이 되고 있다. 그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한 하나님과의 교제이며 둘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간의 교제이다. 코이노니아는 각자의 그리스도

---

[109]김재성, *바울새로보기*(서울: 한국신학연구소, 2000), 199.

[110]Jurgen Moltmann, *생명의 영*, 김균진역(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2), 22.

인이 하나님과 갖는 개인적인 교제나 체험을 의미함과 더불어 교회라는 공동체 속에서 행해야 할 여러 가지 책임들을 부가시키는 개념이다. 구약성서에서 코이노니아 개념의 기초가 되는 또 하나의 정신을 찾는다면 그것은 ó공동체 연대책임ô 정신 혹은 ó집합적인 개인ô 정신이다. 수 천명을 포함하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한 개인으로 이해하기도 하고, 한 개인을 한 공동체를 대변할 만큼 중요성을 띤 공동체적 존재로 간주했다.[111]

교회만큼 변화를 말하면서 변화에 둔감한 것은 없다. 또한 교회의 변화는 급격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서서히 변화한다는 것이다. 현대 기독교내에서 폭넓게 경험되고 있는 공동체에 대한 갈망은 교회를 해방적 변형의 공동체로 변화시킬 가능성을 갖고 있다. 교회는 희망과 자유의 말들이 선포되고 신뢰와 신앙이 경험되며, 도덕적 연구와 교육이 행해지고, 예식과 비판이 일어날 수 있는 장소로서 존재한다.[112] 그러므로 교회 내에서의 변화는 가장 민감한 곳에 있는 것이다.

따라서 오늘날 목회자로서 목사를 위한 교육적 과업에 특별히 적합한 것이 있다. 이는 노인으로 하여금 그 자신의 경험을 통하여 획득된 통찰력을 효과적인 목회적 돌봄에 나누도록 권장하는 것이며 그래서 그들의 예리함으로 그들의 멘티를 자신처럼 이끌어서 변화시키는 역할을 감당하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회구조의 전환은 시급히 요청되는 문제이다. 따라서 목회구조의 전환은 교회 전체의 구조 전

---

[111]이형원, 129-131.

[112]James P. Wind, 101.

환을 가져온다. 목회구조의 전환은 목회 관계자들의 의식구조의 전환을 그 중심으로 하여, 목회의 신학과 신학 전체의 전환을 촉진시키게 될 것이다.

Satir는 자기가치를 개인과 가족의 정신건강의 기초로 보았다. 높은 자기가치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인생의 모든 측면을 존중하며 자신의 에너지를 자신과 다른 사람을 위하여 바람직하게 사용한다[113]. 그리스도인의 공동체가 치유하는 공동체라는 것은 거기서 상처가 치유되고 고통이 완화되기 때문이 아니라, 상처와 고통이 새로운 비전을 위한 자리와 기회가 되기 때문이다.[114]

생활 적기상 노년기에로의 전이는 주로 노년기 역할로의 전이에 의하여 이루어지는데 Rosow는 이러한 노년기 역할에로의 전환은 특별한 통과의식이 없음과 사회적 손실 및 역할의 불연속성 때문에 용이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115] 노년기 이전에 있어서의 역할전이는 졸업, 취업, 결혼 등의 분명한 통과의식이 있지만 노년기에로의 역할전이에는 통과의식이 분명하지 않다는 것이다. 새로운 지위에 들어서는 사람들은 종종 혼란스러운 변화를 경험하는데 이때 통과의식은 적응을 쉽게 해주고 그 사람이 새로운 지위에 적응하는 것을 도와준다.

하나님의 소명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있는 모세는 자기의 부름 안에서 최선을 다하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되는 일과는 모세뿐 아니라 주

---

[113]송성자, *가족관계와 가족치료(서울: 홍익재*, 1995), 203.

[114]Henri J. M. Nouwen, 106.

[115]장인협, 최성재, 96.

위 사람들까지도 지치게 만들고 있었다. 그런 상황에서 방문한 장인 이드로는 모세에게 새로운 제안을 한다. 십부장, 백부장, 천부장 제도를 제안하여 효율적인 성과를 볼 수 있도록 하였다. 문제해결 능력이 없는 경우 반복적인 일들은 지치게 하며 성장 또한 이룰 수 없다.

예수님은 12제자를 부르시고 3년간 훈련시키셨다. 또 그 중에 3명을 애제자로 훈련시키면서 도제식 훈련을 시키셨다. 무엇보다 큰 일과 성과중심의 방법들은 중심을 잃게 하며 방향에 대한 의문을 증폭시킨다. 하나님은 개인을 부르신다. 여기에 하나님의 특수한 코칭이 있다. 이 코칭에 대한 훈련은 말씀과 기도훈련에 달려있다. 변화를 원해도 변화되지 않는 것은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일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작은 일에 충실하고 소명을 느끼며 그 일에 대한 천직임을 고백할 때 자세가 달라지고 변화의 조짐을 느낄 수 있다. 입으로 하는 변화에서 몸으로 느끼는 변화는 엄청난 차이가 존재한다. 실제로 제자가 되겠다고 하면서 제자가 무엇인지 모르면 여전히 자기방식으로 신앙생활하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착각하게 된다.

일꾼이 세워지는 것은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귀하고 중요한 것은 시간이 걸린다. 영적 성장이 한 순간에 이루어지지 않듯이 매일매일 규칙적인 훈련으로 세워가야 한다. 하나님의 부름받은 소명자로서 거듭 태어나야 한다. 그것은 지식적인 양의 확대와 경험의 풍부함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철저하게 자기자신을 부정하고 새 영을 받을 때 가능하다.

Karl Barth가 말하듯이 하나님은 만인과 화해하셨다. 요한복음 3:16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116] 라고 말하고 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전인류적이고 세계적인 사건이다. 그러나 언제나 구원은 소수에게 집중된다. 다수를 향한 포괄적 사랑은 소수에 대한 집중을 흐리게 한다.

구원은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지만 받는 입장에서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서 확신하고 결단해야 한다. 훈련도 마찬가지이다. 훈련 받지 않고 내 것이 되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철저한 훈련만이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도 변화도 가져올 수 있다. 자신의 채워짐이 없는 남에 대한 배려는 공허함만이 남는다. 그래서 변화는 철저하게 자기 자신으로부터 비롯되어야 한다.

노인은 사회적 어른으로서 대접받아야 한다. 지난 날의 인생의 기여와 경험은 존경받기에 충분하다. 베이비붐 세대가 노인이 되면서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부담이 함께 다가왔다.  노인은 여전히 기성세대에게는 부담이다.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세계는 지출확대를 축소하고 사회정책이 다수 중심의 정책에서 비전과 의식개혁의 방향으로 전환될 때 개인의 사회에 대한 기여도와 건강성이 보증될 수 있다.

노인은 한 순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전 생애를 통하여 성장 발달하고 그 연속성 속에서 노인됨을 인식하는 것이다. 신체적인 변화와 더불어 은퇴라는 역

[116] Donald E. Messer, *A Conspiracy of Goodness*(Nashville, TN: Abingdon Press, 1992), 87. Messer 는 하나님의 첫 번째 사랑은 교회가 아니고 세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할의 단절은 재정에 대한 불안감과 더불어 심리적 불안감을 갖게 된다. 65세에 은퇴하고 나면 그 뒤로부터는 아무 할 일 없는 신세로 전락한다. 기성세대는 노인복지에 발목 잡혔다는 말을 쉽게 표현한다. 노인들이 부담으로 작용하는 한 사회의 건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 은퇴 후 계획을 준비하면서 노인문제는 의식의 문제에서 출발해야 하며 사회의 공헌자와 더불어 여전히 기여하는 기여자로서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노인에 대한 긍정성을 확대하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창출해야 한다.

교육이란 이름으로 진행되는 곳에서 성품의 변화는 담보되지 않는다. 대량으로 지식전달을 하면서 이미 인성의 변화는 어려워졌다. 어려운 일을 기피하고 쉽게 가고 쉽게 얻으려는 사회풍조에 경륜있는 코치가 있다는 것은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행복한 인생을 설계하고 누릴 수 있는 축복이다. 전수받고 훈련되지 않으면 진정한 의미의 인생을 누릴 수 없다. 그래서 인생문제도 코칭을 받아야 하고 노인에 대한 정체성과 가치혼란을 겪지 않도록 인생후반부의 계획된 인생을 설계해야 한다. 확실한 신앙관에 입각한 노인들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도록 나아가야 한다.

긍정적 상호작용은 긍정적 자부심을 고양시키고 부정적 상호작용은 자부심을 저하시킨다.[117] 노인들은 성년기에 접촉했던 폭넓은 문화에 지속적으로 참여

[117]Paul K. H. Kim, 25.

하고 거기에 머무르기 보다는 노인들 스스로의 기준과 스스로의 의미를 담아내는 것이 필요하다. 아직 건강하고 교제가 가능할 정도의 이동성을 유지하고 있는 65세 이상의 사람들이나 도시주변의 노인아파트 거주자나 은퇴한 후에 적당한 소일거리를 찾지 못한 사람들에게 활동적인 욕구에 대해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심리학은 인간의 긍정성에서 출발한다. 누구든지 마음만 새롭게 가짐으로 극복할 수 있고 변화될 수 있다. Gary Collins는 그의 저서에서 심리학적인 직업 치료는 과다조장 되었으며 과다사용 되었고 과다평가 되었다고 말한다. [118] Erickson은 오늘날 문화에서 젊은이를 지나치게 강조하기 때문에 마치 노인이 되는 것은 나쁜 것이거나 우스운 것으로 ó성인기 후기ô라는 표현을 많이 쓴다고 주장한다.[119] 지금까지 노인들의 창조적인 잠재력이 지나치게 과소평가 되어 왔다[120]고 주장한다.

[118]Ed. Bulkley, *Why Christians Can't Trust Psychology*(Eugene, Or: Harvest House, 1993), 29.

[119]한성열, 74.

[120]Ibid., 75.

# IV. 교회내 노인의 갈등과 해소방안

## 1. 서술적인 현장 이야기

노인은 과거의 영향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경향이 있다. 살아온 세월동안 굳어졌던 습관과 생활이 현재의 삶의 모든 것을 결정한다. 남을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은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생활을 할 것이며 그로 인하여 여전히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경우가 많다.

> *K 장로는 다른 교회에서 임직 받아 봉사하다가 담임목사와 의견이 맞지 않아 그 교회를 떠나 출석하게 된 경우이다. 처음부터 와서 자신이 장로라고 밝히고 대접해 줄 것을 은근히 기대하였다. 그 동안 교회의 모든 권력을 좌지우지하던 습관대로 쉽게 말하고 명령하며 남의 이야기를 들으려 하지 않아 가급적 사람들이 만나는 것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다. 개인적인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업에도 성공하여 크게 번창하다가 실패하여 지금은 어렵게 생활하고 있다. 그럼에도 교회에서는 장로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여전히 권위적이고 고압적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L 집사는 불교적인 집안에서 태어나 기독교 집안으로 시집와서 평생을 신앙생활하지 않고 있다가 딸들에 의해 인도되어온 경우이다. 처음에는 적응에도 어려움이 많고 고집과 주장이 강하여 인간관계에 애로사항이 많았다. 고집이 세다가도 상대방이 옳다고 여기면 즉시 시정하는 성격이다. 그 동안 교회생활을 통해 생활의 변화를 가져왔으며 신앙의 기쁨을 맛본 후에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최근에 훈련을 통하여 신앙생활을 처음하는 초신자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설명과 이해와 적극적인 관계개선을 통하여 새로운 신앙생활을 접할수 있도록 방향과 방법을 제시해 주고 있다.*

2. 교회 내의 노인의 위치와 이미지

리더십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교회에서는 언제나 갈등이 생길 수 있다. 무기력한 리더십이나 어설픈 계획이나 서툰 집행방법은 교회의 갈등을 부추기는 요소이다. 비전만으로 사정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 비전을 실행할 때 구체적이고 세심한 배려가 필요한데 이때 오랜 경륜에서 나오는 섬기는 리더십이 필요하다. 이러한 섬기는 리더십은 한 순간에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연륜과 경륜이 앞서는 지혜있는 노인들의 조언이 갈등을 해결하는 단초를 가져올 수 있다.

대체적으로 건강한 교회는 내부에서 경험되는 갈등을 인정하고 논의를 거쳐 적절한 해결책을 강구하게 되는데 이 때 훈련된 멘토나 노인들의 역할은 교회의 안정과 하나됨에 큰 역할 을 할 수 있다.

섬기는 리더십은 자기 자신보다 공동체를 지향한다.[121] 그것은 지도를 받는 이들의 성장과 공동체가 공유하는 사명의 달성을 위해 권력을 사용한다. 그래서 그러한 리더십은 영향을 끼치는 관계다. 두 사람 사이에서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비전과 가치관, 태도, 행동에 영향을 주고자 하는 관계이다. 뿐만 아니라 이 관계는 비전과 소망을 주어 세워주고 이끌어 간다. 따르는 사람들의 상상력을 사로잡고 현재의 태도와 행동에 힘을 더해 준다. 내일을 향한 강력한 비전을 보여주기 때문에 삶의 의미와 가치가 부여된다.

지금까지 교회에서의 노인의 위치는 대접받는 사람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연장자는 항상 상석에 앉듯이 명령하며 간섭하는 이미지의 테두리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노인은 온전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없다. 독선적인 성향이 강하면 강할수록 주변의 사람들에게서 외면당하기 쉽다. 보다 인격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관계에 들어갈 수 있도록 신앙의 훈련을 통하여 섬기는 리더로서 자리매김한다면 노인 한 사람뿐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의 어려운 삶들이 개선 되어지고 비전과 소망의 삶으로 전환될 수 있다. 그러기 위해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능력과 신앙적 관점으로 상담과 대안을 제시할 수 있으면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더불어 확실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

---

[121]Walter C. Wright, Jr. *관계를 통한 리더십*, 양혜정역(서울: 예수전도단, 2002), 36.

3. 대안

한인 이민교회에서 선교만큼 교회를 하나되게 하고 전진하게 하는 것은 없다. 복음전파는 개인의 성결보다 앞서며 우리 신앙생활의 최종목표가 되어야 한다.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가 필요하다. 첫째는 성경을 연구해야 한다. 특히 사도행전, 서신서, 그리스도의 생애를 기록한 복음서를 연구해야 하고, 둘째는 기독교회사를 연구해야 한다. 특히 영적인 부흥이 일어난 사건들과 다른 사람들의 회심을 유발시킨 능력 있는 설교를 전파한 전도자들을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열 두 제자의 변화과정을 세 단계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을 단순하게 그리스도로 믿고 사정이 허락할 때 주님의 동료로서 행동하는 단계이다.[122] 두 번째는 주님과의 교제가 세속직업에 대한 전적인 포기와 그리스도의 인격에 대한 전적인 추종의 형태로 발전하였다. 세 번째 단계는 고차원적이고 최종적인 단계에 들어서게 되는데 사도직에 대한 훈련을 받게 되는 단계이다.

리더십에 관한 대부분의 책과 훈련과정, 세미나 등에서는 비전을 주제로 삼고 있다. 리더는 자신이 이끄는 사람에게 다가가고 자신이 제시하고자 하는 미래의 모습을 잘 전달하며 그들로부터 그 미래를 바꾸는 힘을 이끌어낸다.[123] 다음의 3단

---

[122]A.B. Bruce, *열두제자훈련*, 김영봉 역(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4), 25.

[123]Carson Pue, *실전 멘토링*,서진희 역(서울: 국제제자훈련원, 서울, 2008), 126.

계의 과거에서 자유롭기와 비전 세우기 그리고 실행하기의 단계를 갖는다. 이 3단계과정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단계: 과거에서 자유롭기

  -부모에게서/ 아버지의 그늘, 어머니의 그늘

  -혈연의 사슬에서/ 조상, 악령, 서원

  -권력과 주도권 중독에서

- 2단계: 비전 세우기

  -비전의 원리

  -효과적인 전달

  -핵심목적 세우기

- 3단계: 실행하기- 목적을 가지려는 태도 갖기

상처와 아픔은 누구나 가질 수 있고 또 갖게 되지만 회복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회복은 원한다고 되는 성질의 문제가 아니다. 회복을 원하면 원하는 만큼 삶의 진정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상처와 아픔을 자신의 문제로만 국한시켜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자리로 이동하여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진정한 만남을 경험할 때 회복될 수 있다. 비전설정과 목적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리더십 교육과 훈련은 필수적인 과정이다. 그러므로 한 사람의  회복된 리더가 감당하여 나온 결과들은 일일이 말로 설명할 수 없을 것이다.

# V. 성숙한 공동체 형성 모델로서의 노년목회

## 1. 노인: 성숙의 상징

인생은 길다. 인생을 살아오는 동안 사람들은 많은 경험을 하고 삶의 이치를 깨닫게 되고 성숙한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 이런 의미에서 역사적으로 노인이 지혜의 상징으로서 존경 받아왔던 것을 이해할 수 있다. 노인의 지도와 가르침을 통하여 좀 더 성숙한 길로 인생을 살 수 있다면 노인의 역할이 크게 부각될 수 있다.

생물학이나 인류학은 나이 많은 노인들이 기억과 경험을 통하여 긍정적으로 집단에 기여하는 것을 보여준다. 반복적인 작업에 관한 노인들의 기억과 경험은 그들의 성과와 판단 능력을 크게 증가시켜 준다. 그러나 그들에게 부족한 것은 힘과 건강이다. 새로운 것에 적응하는 능력, 더 나아가서는 창조 능력이기도 하다.[124] 시대가 바뀌어 대가족 시대의 어른의 위치가 핵가족이 되면서 사라져 버렸고 다시 젊은 가장으로 대치되면서 새로 경험하여 얻은 지식이 지혜를 대신하는 과정에서 똑같은 시행착오를 겪게 되는 일이 다반사이다. 집안에 어른이 계시면 언제나 질문할 수 있고 대처할 수 있게 되어 생활적으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지혜 있는 사람을 통하여 자신의 능력이 확장될 수 있는 기회를 가짐으로 좀 더 성숙한 삶으로 나갈

[124] Simone de Beauvoir, 120.

수 있는 것이 당사자들에게 복이 될 수 있다.

2. 노인: 성숙의 목표

인생의 경륜이 있다고 누구나 성숙한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은 아니다. 늙는다는 것은 서러움과 아픔이 서려있다. 성숙은 지속적이고 부단한 노력과 시각이 변화되어야 가능한 것이다. 변화는 마음만 있다고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먼저 자신이 누구인지 볼 수 있어야 하고 살아온 인생에서 무엇이 잘못되었고 그 근본원인이 무엇이었는가를 찾게 되면서 점차로 해결되는 것이다. 적응하는 것에 반하여 성장하는 모델의 관점에서 노인은 자신의 길이나 목표를 위하여 통전적인 인격을 이루기 위해 나아가는 것이 노인 스스로에게 적합한 것이다.[125] 따라서 성숙이란 말을 적용할 수 있는 유일한 세대는 노인세대가 된다. 늙음과 추함의 노인에 대한 이해는 노인을 바라보는 관점이 젊음에 대해 상반되는 개념으로 바라볼 때 노인에 대해 잘못된 이해를 갖게 되고 성숙과 전혀 관계없는 생각을 갖게 된다.

얼마나 더 살 것인가 라기 보다 어떻게 살아왔나 하는 것이 행동의 긍정성과 미래지향적인 사고방식을 갖게 한다. 뿐만 아니라 자신에 대해 국한된 생활을 하지 않고 남에 대한 배려와 활동을 할 수 있다. 사람들이 의미 있는 활동을 원한다는

[125]Vincent Oĉonnell and April OĉConnell, *Choice and Change*(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1974), 12.

생각은 변하지 않는다.[126] 노인들에게서 의미 있는 일들을 찾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있다. 남을 배려하고 돕는 일을 계속 실천해 왔다면 남을 돕는 사회봉사에서 상담, 멘토 및 코치까지 축적해온 경험과 지식으로 뛰어난 성과를 발휘할 수 있다. 새로운 역할과 위상이 주어지면 은퇴로 인한 심리적 위축에서 어느 정도 자유로울 수 있다. 남을 위해 돕는다는 생각은 본인에게 정신적, 신체적 유익을 가져다 주고 이를 통한 파급효과도 상상외로 크다고 볼 수 있다.

3. 노인: 연령계층간 대화의 선도자

변화를 기대할 때에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생각하고 이해하는 습관이 이미 몸에 배어버린 탓에 자신에 대한 생각과 타인에 대한 생각이 고정되어 있다. 나이가 많던 적던 간에 이미 고정된 생각은 변화를 기대할 수 없다. 사람은 아는 만큼 듣고 이해한다. 아무리 좋은 소리를 해도 알아듣지 못하면 소용없다. 알아듣지 못하는 그 사람의 속성이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을 생각하고 보려고 시도하지 않는다. 여기에는 변화가 있을 수 없다. 변화는 변화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만 변화를 가져다 준다.

개인에 대한 변화: 한가지 관점과 이해로 살려는 태만한 생각들이 우리의

---

[126]Eliszabeth S. Johnson and John B. Williamson, *Growing Old: The Social Problems of Aging*(NY: Holt, Rinehart and Winston, 1980), 70.

삶을 지배한다. 그것도 좋은 방향보다는 안 되는 방향으로 부정적인 방향으로 항상 기운다. 잘못 살아왔는지 알면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 잘못을 반복하는 악순환이 사고와 생활에 내재되어 있다.

무엇보다 자신의 문제를 깨닫는 과정이 필요하다. 없어서, 못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이 본래 어떤 존재였는가를 다시 짚어보고 점검해 가야 한다. 신앙적으로 우리가 죄인이라고 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입술로만 고백하려고 한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무엇인지 그 죄가 인생을 어떻게 망하게 했는지 깨닫지 못하고 단지 현상적인 문제에 매달리고 해결 받기 위해 나름대로 총력전을 펼치게 된다.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되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다시 그 죄에 포로가 되어 이전과 똑같은 삶을 살게 된다.[127]

한 사람의 인생이 여러 굴곡을 거쳐 완성되는데 여전히 성숙하지 못한 모습을 보이는 노인들이 있다. 항상 큰소리치고 남을 우습게 알며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의 것만 챙기려는 속성을 가진 노인들이 있다. 사람은 과거를 보면 현재를 알 수 있고 현재를 보면 미래가 보인다. 그만큼 살아온 인생이 중요하고 그 사고와 생활방식을 바꾸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당연시 된다. 그러나 인생의 경험을 가지고 지혜와 조언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인적자원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것은 한 사람의 변화뿐

---

[127]Oswald Chambers, *죄의 철학*, 스데반황역(서울: 토기장이, 2011), 109. 오스왈드 챔버스는 이러한 속성을 유기체인 생명은 원래 모습으로 복귀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한다.

아니라 주변상황에 새로운 전기를 제공해 줄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노인들을 통한 멘토나 코칭은 공동체에 있어서 커다란 유익이 될 수 있다.

코칭은 상담이 아니다. 그것은 또한 과거로부터 받은 고통스러운 영향을 극복하기 위해 심리치료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도 아니다. 코치는 사람들이 비전을 세워서 미래를 향해 나아가도록 돕는다. 코칭은 역행적으로 과거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주도적으로 앞을 바라보는 것이며 코칭은 치유에 관한 것[128]이 아니라 성장에 관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한 분야에서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인생의 전반적인 문제들을 경험하면서 경륜을 쌓아온 노인들의 인생경험은 그대로 방치하고 무시할 것이 아닌 그야말로 귀중한 인적자원인 것이다. 이미 준비되어온 자원을 교회 내에서 방향과 목적을 함께 세우면서 일꾼으로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이들에게 삶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찾을 수 있는 하늘이 주신 기회인 것이다.

사람들은 달라지기 원하기 때문에 코칭을 받으려 하는데 여기에는 태도와 생각과 인식 그리고 행동의 변화를 포함하는 경우가 많다. 변화시켜야 할 목록 중 다음과 같은 주제들을 살펴볼 수 있다.[129]

- 운동이나 음악, 돈 관리, 공개강연, 부모역할 또는 리더십과 같은 분

---

[128]Gary Collins, *크리스천 코칭*, 정동섭역(서울: IVP, 2001), 21.

[129]Ibid., 21.

야에서 기술 개발하기

- 열정을 발견하고 개발하기
-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기
- 장래에 대한 좀 더 분명한 비전을 세우기
- 사명 선언서 만들기[130]
-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법 배우기
- 효과적으로 인간관계 맺는 법 배우기
- 분명한 가치관 발견하기
- 대화기술 배우기
- 수행능력 평가하기
- 정체상태에서 벗어나 앞으로 나아가기
- 사물을 다르게 생각하고 보는 법 배우기
- 행동능력 키우기
- 자기 패배적인 행동과 파괴적인 독백으로부터 벗어나기
- 더 나은 팀 만들기
- 자신감 심어주기
- 현재하고 있는 일에서 의미를 발견하게 하기
- 모험을 할 수 있는 용기 불어넣기
- 책임지는 법 배우기
- 하나님과 더 가까이 동행하는 법 개발하기

---

[130]자신에 대한 사명을 진단하고 기술하는 것은 지난 날의 자신의 삶을 점검하고 다가오는 미래에 대해 보다 분명하고 확고한 삶의 형태를 추구할 수 있게 한다.

코칭은 사람 사람들이 그들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섬김의 리더십의 한 가지 형태이다. 이것은 사람들을 격려하고 동기를 부여해서 그들의 잠재력을 끌어내고 목표를 달성하도록 도와주는 리더십의 한 형태이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코칭을 사용하셨는데 스스로 그들에게 역할모델이었고 가야 할 길을 보여주었고 오해를 바로잡아 주셨으며 스스로 책임을 지고 자기가 맡은 일을 수행하도록 격려하였다.

리더십과 코칭은 관계에 대한 것이다.[131] 관계를 맺고 있을 때 변화된다. 강력하고 오래 지속되는 변화는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어울릴 때 일어난다. 리더십 코칭은 시간과 헌신과 에너지를 요구한다. 코칭은 너무 바쁘고 결과를 낳는데 지나치게 치중하고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잠재력을 발휘하도록 도와주기에는 너무 자신에게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사회적 관계 안에서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에 의해 헌신적으로 섬기는 교회 안에서 더욱 효과적으로 결실을 맺을 수 있다.

4. 노인: 화해의 대행자

리더십과 코칭은 변화에 대한 것이다.[132] 변화에 직면했을 때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속수무책이 된다. 왜냐하면 자기 방식에 고착되어 있기

---

[131]Ibid., 43.

[132]Ibid., 49.

때문이다. 그들은 매번 같은 접근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새로운 대안을 제시할 수 없다. 변화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각 자의 성격과 시각에 따라 좌우된다.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찾아볼 수 있는 세 가지 반응은 첫째는 변화를 무시하고, 변화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딴청을 피우는 것이다. 이러한 접근방식은 변화를 원하는 그룹들에 대해 수용하지 못하고 밖으로 돌게 만들다. 두 번째는 환영하여 받아들이는 변화가 있다. 약간은 시간이 걸리지만 길을 모색하고 방법을 찾아가게 된다. 세 번째는 저항하는 변화가 있다.

사람들은 변화에 휩쓸려 가다가도 적응을 강요 당하거나, 혁신적으로 변화와 함께 일하는 방법을 배우거나, 아니면 스스로 변화가 일어나게 하는 것이다.[133] 대부분의 사람들은 첫 번째 경우처럼 변화를 지켜보다가 맞이하게 된다. 특히 교회의 경우에는 변화를 강요당할 때까지 저항하다가 결국에는 변화를 수용하든지 아니면 기존에 남아있는 사람들끼리 자기만족적인 모임으로 전락할 것인지 사이에서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된다.

5. 노인: 치유목회의 도전자

노인들이 발휘할 수 있는 리더십의 형태로서 Richard Clinton은 멘토의 형태

[133]Ibid., 51.

를 아홉 가지로 구분한다.[134]

표 **3** 멘토링 관계의 다양한 유형과 기능

| 제자 훈련가 (Discipler) | 그리스도를 따르는데 기본적인 제자도의 기능을 위해 능력 부여받기를 추구함 |
|---|---|
| 영적 인도자 (Spiritual Guide) | 영성을 위한 점검과 확인 그리고 영적 성장과 성숙을 위한 영적 훈련의 실습을 제공함 |
| 코치(Coach) | 사역을 위한 기술개발을 향상시키고 개발된 기술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함 |
| 상담가(Counselor) | 제자가 삶과 사역을 제대로 조망할 수 있는 조언과 관점을 적시에 제공함 |
| 교사(Teacher) | 제자의 삶 속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식과 동기를 부여함 |
| 후원자(Sponsor) | 어떤 사역 환경 속에서 차기 지도자로 자라가도록 직업적인 안내와 보호를 제공함 |
| 동시대의 모범 (contemporary Model) | 삶과 사역에서 본받을 만한 개인적인 모범을 제공함 |
| 역사적인 모범 (Historical Model) | 과거의 지도자들에게서 삶과 사역에 대한 원칙과 가치관을 배우는 (수동적인) 방법 |
| 신적인 접촉(Divine Contact) | 신적인 개입으로 여겨지는 인도와 분별력을 적시에 제공함 |

[134] Keith R. Anderson and Randy D. Reese, *Spritual Mentoring*, 김종호역(서울: IVP, 2001), 45.

이 아홉 가지는 관계의 강도와 구조의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데 아홉 가지 멘토의 형태는 제자 훈련가, 영적 인도자, 상담자, 후원자, 교사, 코치, 동시대의 모델, 성경.역사의 모델, 신적인 접촉 등이 포함된다.[135] 멘토링은 사려 깊게 추구할 때 더욱 효과적이 될 수 있다.[136] 이런 의미에서 노인들이 발휘할 수 있는 인간관계와 교감의 최상의 효과를 멘토링에서 얻을 수 있다.

제자훈련은 적극적인 형태의 멘토이며 일차적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기본진리로 제자를 무장시키는데 있다. 많은 교회에서 교인들을 양육하고 훈련하는 첫 번째 목적은 제자를 삼는데 있다. 멘토의 또 다른 형태로서 코치가 있다. [137] 코치의 일차적인 관심은 제자에게 동기를 부여하여 성공적인 사역을 위하여 은사, 능력, 기술을 계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이런 형태의 코칭을 예수님이 열 두 제자를 파송 하셨을 때 볼 수 있다.[138]

성공적인 코치는 실전을 앞두고 자기 팀의 상태를 최고로 끌어올릴 수 있는 사람이다. 팀 구성원들에게 성공을 향해 나아가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세워주는 것이 성공적인 멘토나 코치가 할 수 있는 일이다. 제자는 스스로 실험하고 자라고 형통한 관계 안에서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이를 통하여 변화로의 과정에 한발 다가서

[135]Richard Clinton, Paul Leavenworth. *평생사역을 꿈꾸는 리더*, 임종원역(서울:도서출판 진흥, 2006), 250.

[136]Ibid., 247.

[137]Ibid., 253.

[138]마태 10 장, 누가 9 장.

게 된다.

치유받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신뢰를 통하여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한다. 오해와 상처가 있을 때에는 용서를 구하는 동시에 용서를 해주며 겸손하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코치를 통하여 해결받게 되면 관계가 더욱 돈독해진다. 어려운 과제를 함께 해결하면서 관계를 강화하고 생활가운데 적절한 관계 기술과 태도를 세워가게 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관계 속에서 치유가 일어나고 리더십이 형성되고 성취감과 아울러 자신의 영적 성장을 인식할 수 있게 된다.

# VI. 교육과 훈련

## 6. 연구반 운영과 활동

### 1) 연구반 구성

연구반의 구성은 에셀교회의 활동적인 교인을 중심으로 각 연령대에 맞게 선정하였다.

표 4. 연구반 명단

| | 이름 | 나이 | 직업 | 교회직분 | 신앙연륜 | 비고 |
|---|---|---|---|---|---|---|
| 연구반 | 정은숙 | 74 | | 권사 | 45년 | |
| | 이순복 | 49 | 자영업 | 권사 | 7년 | |
| | 심인영 | 53 | | 전도사 | 30년 | |
| | 제미경 | 48 | 디렉터 | 사모 | 모태 | |
| | 김성희 | 50 | 자영업 | 집사 | 15년 | |
| | 송현미 | 39 | 직장인 | 집사 | 16년 | 주일학교교사 |
| | 정병훈 | 35 | 직장인 | 집사 | 30년 | |

### 2) 연구과제 수행계획과 일정

본 연구반의 준비는 주후 2009년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비전과 동기부여를 위한 기초작업으로 시작하였다. 3개월간 준비단계로 모여 함께 연구반의 방향과 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과 적용방법에 대해 설명을 듣고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준비단계를 통하여 동기부여 및 변화단계에 이르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연구반은 강의뿐 아니라 기도모임과 나눔을 통하여 서로의 인격과 상호신뢰를 중심으로 신앙의 변화를 유도하였다.

먼저 12주간 주일설교를 통하여 변화를 유도하였다. 변화의 비전을 바라보게 하며 지금까지 자신을 사로잡고 있던 사고방식과 습관을 점검하면서 변화를 갈망하고 믿음 가운데 변화의 확신과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도록 하였다.

표 5. 동기부여 설교시리즈

| 날짜 | 연구 활동 | 연구 조사 내용 |
|---|---|---|
| 2010 1월 3일 | 창세기 32:24-29 | 미리 꿈을 만져보라 |
| 1월 10일 | 고린도후서 10:1-6 | 견고한 진를 파괴하라 |
| 1월 17일 | 마태복음 15:21-28 | 나는 되는데 너는 왜 안되느냐 |
| 1월 24일 | 로마서 1:16-17 | 복음은 성도의 능력입니다 |
| 1월 31 | 마태복음 11:2-6 | 선택받은 자의 축복 |
| 2월 7일 | 마태복음 13:44-46 | 사람이 변화됩니까? |

| 2월 14일 | 열왕기하 2:7-22 |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 |
|---|---|---|
| 2월 21일 | 누가복음 5:36-39 | 패러다임을 전환하라 |
| 2월 28일 | 출애굽기 32:1-14 | 부족한 기다림, 조급한 신앙 |
| 3월7일 | 마태복음 8:5-13 | 하나님의 음성듣기 |
| 3월 14일 | 마태복음 6:33 | 대가를 지불하라 |
| 3월 21일 | 창세기 26:1-11 | 거룩한 습관 들이기 |

본 훈련은 2010년 1월부터 2011년 3월에 이르기까지 4단계의 과정으로 나누며 각 12주의 과정을 거쳤다. 훈련기간을 통하여 변화목표를 향한 지속적인 훈련과 사고와 습관과 행동의 변화에 이를 때까지 강의와 수양회와 과제부여를 통하여 변화를 추구하였다.

첫 단계는 신앙을 재점검하며 자신의 소명을 재확인하는 과정으로 기초적인 부분에서 바람직한 신앙인으로 변화되는 과정으로의 초점을 맞춰 진행하였다. 기초과정에는 수양회를 먼저 시작하였다. 지금까지 살아온 생활을 되돌아보며 자신의 모습과 상태가 어떠한가에 집중하며 돌아보는 시간이다.

수양회를 마치고 12주의 기초과정이 매주 1회씩 진행되었는데 이 기간에

신앙생활에 소홀했던 부분들을 다시 강조하고 점검하면서 새로운 결단과 의지의 재점검을 하는 과정도 포함되었다.

1단계: 양육반 과정

표 **6**

| 기간 | 연구 활동 | 연구 조사 내용 | 비고 |
|---|---|---|---|
| 3개월 | 양육반 | 1과 만나서 반갑습니다<br>2과 구원의 확신<br>3과 은사점검<br>4과 사죄의 확신<br>5과 기도응답의 확신<br>6과 인도와 승리의 확신<br>7과 성령충만한 그리스도인<br>8과 수레바퀴의 삶<br>9과 묵상의 시간<br>10과 열린모임이란<br>11과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br>12과 새가족 섬김이학교 | |

이 과정에서 그 동안 자신의 영적 성장에 무관심하던 사람들이 예배와 설교만으로 만족하지 않고 양육을 통하여 진정한 영적 성장이 이루어짐을 체험하는 기

간이다.  양육을 통하여 진정한 영적 성장이 이루어짐을 체험하는 기간이다. 엄청난 노력과 눈물과 대가를 치루는 해산의 수고로 성장이라는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기간이다. 특히 이 기간 중에 강조한 것은 신앙생활에서의 우선순위  정하기와 자신의 성경과 은사 점검하고, 그리고 매일매일 묵상과 기도와 전도로 이어지는 수레바퀴의 삶의 실행이 습관적인 삶이 되도록 하는데 중점을 둔다.

이 과정에서의 변화목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기 정체성 확립,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일꾼으로 세워지는 것이다. 수행과제는 교재에 있는 성경말씀  써오기, 매일 30분이상 기도하기, 매일 2장씩 성경읽기, 한주간 복음송 100곡 듣기 등이 있다.

양육반 과정에서의 변화는 신앙의 습관화이다. 지금까지 한번도 신앙의 훈련을 받지 못했고, 주일예배 참석만으로 자신의 신앙의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는 삼류 신앙인에서 매일 훈련 받고 점검하는 과정을 통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살아있는 신앙인으로 변화를 추구하였다. 대부분 이 과정에서 훈련받지 못한 이전 삶에 대한 반성과 함께 기초적이면서도 구체적인 신앙 훈련을 통하여 회개와 은혜를 경험하고 신앙의 새로운 다짐을 하게 되었다.

2단계: 제자반 과정

표 **7**

| 기간 | 연구 활동 | 연구 조사 내용 | 비고 |
|---|---|---|---|
| 3개월 | 제자반 | 1과 나를 소개합니다<br>2과 그리스도의 주재권<br>3과 당신은 주님의 제자다<br>4과 제자는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br>5과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br>6과 성령님을 무시하면 인생은 실패한다<br>7과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셀그룹<br>8과 성령의 능력으로 영혼을 살려라<br>9과 주님이 기뻐하시는 제자 | |

2단계는 사역자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다는 모토로 양육과 훈련으로 사역자를 길러내는 과정이다. 이 제자훈련의 목적은 가치변화에 두는데 세상적 가치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그 눈을 뜨게 하고 이로 인하여 사람이 변화되는 것을 체험하도록 하는 과정이다. 2단계에서의 구체적인 변화목표는 예비리더로서 자기소명과 삶의 우선순위를 신앙안에 두며 그리스도와의 인격적 관계를 확립하여 확고한 신앙관을 확립하는데 있다.

2단계 과정에서의 두드러진 변화는 순종이라는 새로운 도전이 제기되는데 지금까지 신앙의 단계가 자기 중심적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이동하도록

초점을 맞추고 진행하였다. 그리스도의 주재권의 문제제기와 순종의 훈련은 대가를 지불해야 하고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신앙생활이 아닌 성령을 의지하는 신앙으로의 전환을 도모하였다.

이러한 결과로 드러나는 것은 도전받고 실천하려는 의지와 결단이 조금씩 이루어지고 미리 짜여진 강의와 훈련 속에서 실제적으로 신앙의 삶으로서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예비리더들은 현장실습을 지식으로만 전달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책임적으로 실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됨으로 더욱 공고한 실천의지를 소유하게 되었다.

제자반 과정을 마친 후에 리더 수양회로 모였다. 이 리더 수양회는 동기부여를 통하여 리더로서 새로운 다짐과 결단을 촉구하는 과정이다. 도저히 자신의 능력으로 리더를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 리더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과 확실한 동기부여 그리고 성령충만함을 통하여 새로운 힘과 능력을 받게 함으로 리더로서의 충분한 역량을 발휘하는데 목적을 두고 시행하였다. 처음에는 자신감도 없고 능력도 없다고 고백하던 사람들이 생기를 되찾고 이제는 감당하겠노라고 확신하며 결단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3단계: 군사반 과정

표 **8**

| 기간 | 연구 활동 | 연구 조사 내용 | 비고 |
|---|---|---|---|
| 3개월 | 군사반 | 1과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br>2과 날마다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라<br>3과 그리스도의 몸 세우기<br>4과 열매맺는 주님의 군사<br>5과 성숙한 인격을 가진 제자<br>6과 사역의 실패는 없다<br>7과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셀그룹<br>8과 훈련된 순종의 군사<br>9과 장성한 군사 | |

3단계는 양육과 훈련을 통하여 변화를 유도하고 실생활 가운데 변화를 실감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다. 이 과정은 훈련받은 삶으로 심화시켜 가는 과정으로서 한 사람의 고백과 더불어 삶의 현장에서 흔들림없이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멘토와 코치를 병행해 가면서 변화를 실감하게 하는 과정이다.

3단계 과정을 통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훈련과정과 익숙해진 신앙훈련의 삶을 통하여 이전의 시야가 달라지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관으로 확고하게 자리잡도록 하였다. 현장실습의 실제적인 적용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리더로서의 자리매김과 자신의 리더십으로서 리더의 권위를 획득하는 과정을

체험하였다. 감정적으로 불안정한 신앙생활이 양육과 훈련을 통하여 안정적이고 확고한 신앙생활로 자리잡아 가는 것이 보여지고, 훈련의 결과들이 점차 성과를 나타나는 단계에서 성취감과 자신감은 더욱 고취되었다.

4단계 : 사도반 과정

표 **9**

| 기간 | 연구 활동 | 연구 조사 내용 | 비고 |
|---|---|---|---|
| 3개월 | 사도반 | 1과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라<br>2과 역사의 주역이 되라<br>3과 열린모임은 하나님의 소원이다<br>4과 일꾼을 찾아 일으키라<br>5과 셀그룹을 견고케하시는 성령님<br>6과 열린모임의 성공전략<br>7과 셀리더를 향한 주님의 요청<br>8과 성령님의 은사로 섬겨라<br>9과 셀그룹 리더십 | |

4단계과정은 한 사람이 리더로 세워지고 또 다른 사람을 리더로 키워내는 과정이다. 자신의 맡겨진 영역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성취하며 열매맺는 과정으로 진정한 변화를 체험하는 과정으로 이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이루는 과정이다.

4단계 과정을 마치면서 교회 내에서 잘 짜여진 훈련의 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유용하고 이를 통하여 쉽게 양육과 훈련의 과정에로 전환하게 하는지 볼 수 있었다. 이 과정은 한 명의 리더로서 모두에게 공인되고 확인하는 과정이며 스스로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자신의 능력과 비전을 확실히 세우고 교회와 함께 그 비전을 향해 달려가고자 하는 분명한 목적의식을 소유하게 만든다.

5단계: 인도자 과정

6개월 과정을 이수하면 리더로서 개인이나 그룹의 인도자로 설 수 있도록 장을 제공하였다. 교회 내에서 지도되지 않는 개인적인 관계와 접촉은 방향과 목적을 상실할 수 있다. 1년 4개월동안의 훈련과정과 6개월 이상의 신앙훈련 기초 과정을 마친 노인들에게 인생의 경험과 지혜를 통하여 축적된 상담 및 멘토의 역할 을 감당하게 하고 상실과 고통의 과정 가운에 처한 사람들에게 멘토로서, 코치로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하는 것은 필수적인 일이다.

전체적으로 1년 4개월간 진행된 훈련을 통하여 한 개인이 변화될 뿐만 아니라 리더로서의 자기 소명과 결단에 까지 이르도록 하고, 동기부여와 소명의식을 고취시키고 신앙의 기본적인 생활을 강조하여 지금까지 등한시해 왔던 기초적인 신앙점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 명의 리더가 훈련받고 정식

으로 리더로 세워지는 것은 한 사람의 인생이 치유되는 것은 물론 그 주위에 미치는 파급효과 또한 상당하다.

4단계 진행과정을 도표로 아래와 같이 설명하였다.

표 **10. 4** 단계진행과정

| 기간 | 연구 활동 | 연구 조사 내용 |
|---|---|---|
| 1일 | 수양회 |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점검하며 자신이 누구인지 깨닫고 철저한 회개와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이다. |
| 3개월 | 양육반 | 신앙의 기초훈련을 통하여 가치와 체계를 신앙적으로 재구성하는 과정이다.<br>이 기간동안 사람들 삶의 우선순위와 훈련의 중요성을 깨닫게 된다. |
| 3개월 | 제자반 | 신앙생활이 교회출석이 아닌 양육과 훈련으로 이루어지며 철저한 자신의 순종만이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이룰 수 있음을 배우게 된다. |
| 1일 | 수양회 | 리더로 세워지는 것이 개인의 능력과 경험으로 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소명에 의해 세워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될 수 있음을 깨닫게 된다. |
| 3개월 | 군사반 | 훈련받은 내용을 지식적인 축적에만 머물지 않고 자신의 삶에 적용하고 경험되어 이전삶으로의 회귀되지 않고 믿음안에서 세워져가게 된다. |
| 1일 | 수양회 | 중보기도를 통하여 자신의 범위안에서 안주하는 것이 아닌 남의 아픔과 고통에 민감하고 항상 맡겨진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자세와 모든 시작이 기도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한다. |

| 3개월 | 사도반 | 실제로 사람을 훈련할 수 있는 리더로서 사람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실제적인 지도자로 변화되게 된다. |
|---|---|---|

3) 평가

본 연구는 4 단계 과정을 마친 후 2011 년 3 월에 설문조사 형식을 통하여 평가하였다. 평가의 대상은 정기적으로 주일예배를 참석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1) 연구반원 개인의 변화와 프로그램

연구반원들의 공통된 견해는 신앙생활의 변화를 체험하였다는 것이다. 자기 신앙고백과 더불어 헌신과 봉사로 이어지는 제자의 삶을 실천하였다. 먼저, 본 연구자가 변화를 체험하였다. 말과 생각이 달라졌고 무엇보다 행동하는데 있어서 확신이 생겼다. 변화를 실감하니 변화에 대한 강조가 구체적으로 진행되었다.

훈련 받은 사람들의 삶이 생활위주에서 신앙위주의 삶으로의 정착되는 것이 실제로 이루어져 갔으며, 형식적인 말씀과 기도가 규칙적이고 생동감 있는 말씀과 기도생활가운데 실천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뿐만 아니라 주일설교를 통하여 전교인 대상을 대상으로 설교로서의 문제제기를 계속함으로 변화를 이끌어 내고 도전과 용기를 주어 훈련 받는 사람만이 아닌 전 교회적인 차원에서 변화를 유도해

나가도록 조정하고 지원하였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공하고 승리해본 적이 없어서 치유되고 변화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현실적으로 실감이 되지 않아서 처음에는 시도조차 어렵게 느껴졌다. 그러나 예배를 통하여 신앙 안에서의 거듭남, 죄, 성령 및 구원에 대해 정확하게 알려주니 자신들의 모습을 스스로 보게 되고 믿음가운데 규칙적인 말씀과 기도생활로 전환하고 시도하려는 움직임이 보여졌다.

교회적인 차원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개인적인 차원에 머물지 않도록 성경읽기와 기도훈련의 계획을 발표하고 함께 실행해 나가도록 했으며 특히 예배를 통하여 깊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유도할 수 있도록 기존 전통방식의 예배순서보다는 찬양과 말씀과 기도중심의 열린 예배 방식으로 변경하여 큰 호응을 얻어내었다.

본 연구에 참여한 연구반원은 신앙생활은 오래 하였으나 변화되지 못하고 예배 참석에만 의미를 두던 사람들이었는데 양육과 훈련을 통하여 동기부여가 되고 변화를 가로막고 있는 자신의 장애물들을 발견하고 이를 제거하려고 노력하였다. 이들은 모두 이번 연구과제 수행에 처음부터 끝까지 참석하고 함께 함으로 교회의 변화 뿐 아니라 개인신앙의 변화를 체험하였다. 이들은 다음에 언급한 설문조사에도 참여하였다. 설문조사의 내용을 토대로 결과를 도출해 보면, 기존 설문조사를 통하여 드러난 변화의 평균치보다 웃돌고 있다. 특히

개인신앙의 발전이 두드러졌음을 알 수 있다. 교회의 공적인 예배 뿐 아니라 개인의 삶이 이전에 비해 하나님과 더욱 밀접해 졌음을 알 수 있다.

노인들은 처음에 이 훈련에 참가하기 전에 본인의 나이를 의식하여 학업수행능력에 대한 두려움으로 주저하고 기피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주변의 권유와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는 말을 듣고 다시 용기를 얻어 참여하게 되었는데 초기단계에서는 조금 힘들어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노인들은 이전에 어떤 일을 했는가에 따라 태도가 달라진다. 고등교육을 받은 노인들은 읽고 쓰는 것에 별로 두려움이 없었고, 교육 정도가 약한 노인들은 읽고 쓰는 것에 상당한 부담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 이것은 나이와 상관없이 중년의 교육 정도가 약한 사람들에게서 이와 같은 현상이 두드러졌다.

처음에는 젊은 사람들보다 열정적으로 참여하지 못했지만 흐름을 알고 원리를 이해한 후에는 속도가 붙기 시작하였고, 기초훈련을 마치고 지나온 인생의 문제를 돌아보면서 신앙의 깨우침으로 인하여 삶의 다양한 부분에서 도전 받고 있음이 감지되었다. 노인들은 자신의 경험 안에서 해결되지 못했던 일들을 신앙의 문제로 풀어내는 적극성을 보였고 한 번 집중하게 되면서부터 자세와 태도가 눈에 띄게 달라져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처음에는 할 수 있을까라는 의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정확한 문제 지적과 함께 원인을 다루고

해결방법을 알려줄 때 전폭적으로 수용하면서 지난날을 회개하는 과정으로 나아갔다.

한 사람이 리더로 세워지고 쓰임 받는다는 것은 오랜 과정이 걸린다. 세워서 잘 할 것 같은 사람들이 넘어지고 실패도 경험하지만 그 때마다 동기부여를 하면서 다시 훈련에 참가하도록 독려하고 용기를 북돋아 줄 때 일어서는 모습을 보았다.

오늘날은 백수를 바라보는 시대이다. 60 세 이후 최소 30 년을 더 살아야 하는데 집안에서 지루하게 보낼 수 만은 없다. 한 사람의 비전을 소망하는 노인리더를 통하여 주변의 많은 노인들이 일어서고 인생의 경험이 풍부한 건강한 영육을 소유한 노인들이 젊은 세대를 끌어안을 수 있다면 이들이 속한 공동체는 상처에서 쉽게 회복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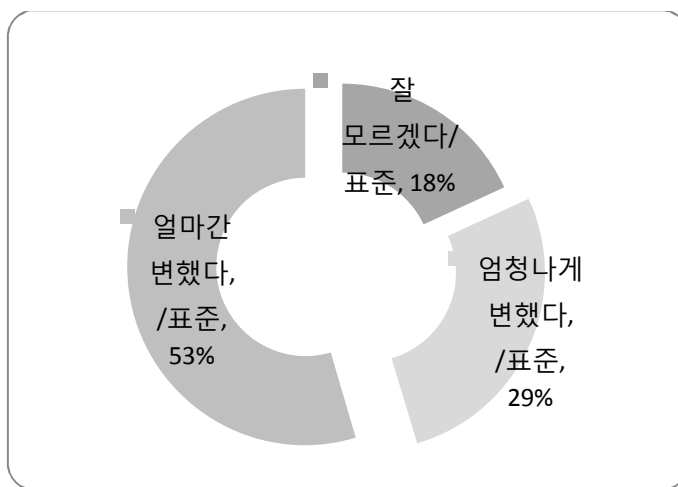
한 사람이 회복되는 과정은 개인차가 있지만 프로그램으로 정착되어 끝까지 일관성 있게 진행될 수 있었다. 프로그램을 진행함의 전 과정에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그것이 경험으로 축적된다면 진행과정에서 제기되는 불협화음들이 축소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연구반의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는 전체적으로 과중한 부담을 주고 훈련과정도 어려웠지만, 리더의 지시와 관심 가운데 잘 마칠 수 있었다고 하였다. 힘든 과정을 마친 후에야 비로소 전체적인 프로그램의 과정을 이해할 수 있었고 자신들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도 전망할 수 있는 안목을 가지게

되었다고 고백하였다. 그러나 리더를 통한 일방적인 지시와 전달이 주어지는 과정에서는 좀 더 유연한 자세가 요구되며, 훈련과정 중에서 관심과 사랑이 많이 표현되었지만 한편으로는 개개인에 대한 능력의 차이에 대한 배려가 좀 더 필요하다고 지적도 제기되었다.

또한 프로그램 진행과정에서 신앙의 기초적인 훈련이 이루어 지기 전에 신앙생활이 철저하지 못한 점에 대한 후회를 고백하였다. 자신의 성격과 은사를 알고 말씀과 기도의 생활화를 통하여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고 그리스도인의 의무이자 권리인 복음전파의 사명을 깨닫게 되었으며, 무엇보다 자신을 짓누르고 있었던 죄의 실체를 깨달음으로써 신앙 안에서의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었다고 고백하였다.

(2) 설문조사 분석 내용

표 **11.** 설문조사 **1**

본 연구 과제수행에서는 4 단계 12 주 훈련을 장기간으로 실시하여 1 년 4 개월이 소요되었다. 인생관의 변화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대체적으로 처음보다 변했다고 응답하였다. 엄청나게

변했다고 답한 비율이 29%, 얼마간 변했다가 53%, 잘 모르겠다는 18%로 대부분이 변화를 깨닫고 실천하고 있다고 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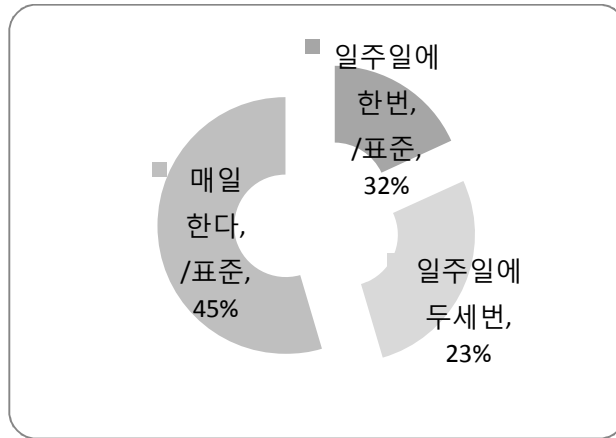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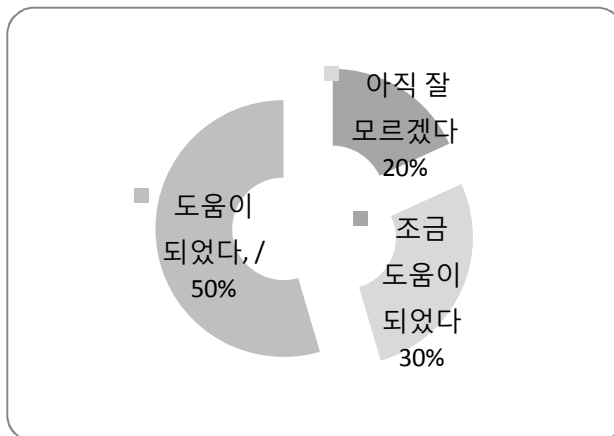
표 **12.** 설문조사 **2**

양육과 훈련을 통하여 습관화된 말씀과 기도생활을 어떻게 유지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훈련 받은 대로 매일 한다가 45%, 일주일에 두 세 번이 23%, 일주일에 한 번이 32%로 나타났으며 훈련과정에서의 구체적인 학습과 점검이 실제 생활가운데 비교적 정착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표 **13.** 설문조사 **3**

6 개월 이상 훈련을 마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인도자 실습과정에서 심신이 어렵거나 힘든 중에 있는 사람들을 연결하여 회복시킨 경험이

도움이 되었다 50%, 조금 도움이 되었다 30%, 아직 잘 모르겠다 20%로 나타났으며 실제로 활동의 장을 가지고 접목될 때 더 큰 효과와 더불어 경험을 통한 회복의 기능이 크게 작용한 것을 볼 수 있었다.

(3) 연구과제 수행의 한계

이 설문조사를 통하여 분석한 내용을 요약하면 사람들은 변화될 수 있다. 그러나 개인적인 능력이나 경험에 기반을 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도전 받고 기도로 하나님과 교통함으로 자신의 나약함과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변화의 주체임을 고백할 때 대다수의 연구반원들의 생각과 생활에 변화를 보였다. 소수의 인원으로 진행된 수행과정이기 때문에 보다 객관적인 통계와 정확성을 기할 수는 없었으나 소수에 적용되어 가능한 일은 다수에게도 가능함을 또한 볼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자가 열정을 가지고 강하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함께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강요가 될 수 있겠다는 아쉬움도 있다. 좀 더 포용적으로 이해하고 수용하는 마음이 필요하다고 문제점도 동시에 제기한다.

4) 연구과제 수행 이후의 변화

개인신앙의 변화: 본 연구자는 목회현장을 통하여 적용한 내용에 있어서 많은 변화가 있었다. 기존의 형식적인 신앙생활에서 벗어나 소명을 확신하고 이제 훈

련 받고 재교육 받아 기본적인 신앙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을 인식하며 말씀대로 행하고 전파하는 삶으로의 실천이 이어졌다.

개인적인 신앙성장은 말씀과 기도의 훈련, 일대일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매일 무릎 꿇는 신앙의 여정이 시작되고 말씀을 통하여 약속을 확인하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되었다. 무엇보다 강한 열정 가운데 교인들에게 사명감을 고취시킬 수 있었으며 현장사역에서 다시 확인되고 재점검하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반복학습을 통하여 이론적으로 정립이 더욱 구체화되고 명확하게 되어 실제로 체화하는 과정을 밟아갈 수 있었다.

교회의 변화: 교회가 한 사람의 새신자를 교육하고 훈련하여 일꾼으로 만드는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다는 것은 개인을 위해서도 교회를 위해서도 바람직한 일이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다 보면 시행착오를 통하여 수정되고 점검되어 더욱 긍정적인 활동들을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다. 시스템을 통하여 일시적인 형태의 교육에서 계속적인 교육과 훈련으로 개인의 역할과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어 한층 발전된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교인들의 변화이다. 그 동안은 교회출석이나 헌신도에서 수동적이었다면 이제는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모습 속에서 자신들이 맡은 역할에 대해 성실하게 수행하는 교회의 일꾼의 세워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전도의 활성화와 교회분위기의 반전을 통하여 전체적인 분위기가 좋아졌으며 회복공동

체로서의 기운과 힘을 체험하였다.

## 7. 목회 유능성 개발

### 1) 리더십

목회자의 리더십은 ό섬기는 리더십ô이어야 한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준 리더십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섬긴다는 것이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니며 자신의 능력이나 경험에 의지하려 하기 때문에 종종 결실을 거두지 못하고 실패하게 된다. 목회자의 리더십은 철저하게 위로부터 받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는 목회자, 말씀에 충만한 목회자, 성령의 음성에 민감한 목회자가 되기 위해 무릎 꿇은 자세와 습관이 있어야 한다. 교인들은 목회자가 달라져야 그것을 보고 변화하려는 마음을 갖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사람에 의존하기 보다는 기도하고 말씀으로 응답받는 삶이 이루어져야 한다. 목회자가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리더십은 따라온다. 사람들의 상황에 치우치지 않고 구체적인 계획과 문제들을 확신 있게 실행하게 되었다.

훌륭한 리더란 방향이 분명하고 구체적인 일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한다. 어떤 상황에서도 동기를 부여할 수 있어야 한다. 동기부여는 사건을 새롭게 보게 하며 결단하게 하여 새로운 전기를 구축하는데 원동력이 된다. 리더는 공동의 목적을 성

취하기 위해 이끌고 가는 사람이다. 리더의 역할이 직함으로 시작되고 불릴 수는 있으나 직함이 아니라 자신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때 비로소 진정한 리더가 될 수 있다.[139]

리더십을 개발하기 위해서 리더는 훌륭한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 리더는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을 하도록 끊임없이 요구 받고 있기 때문에[140] 우유부단하고 서투른 결정을 하면 낭패를 보기 십상이다.

좋은 결정을 하는 데 필요한 다섯 가지 단계는 다음과 같다.

- 1단계: 논제나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한다.
- 2단계: 정확한 사실들을 수집하고 분석한다.
- 3단계: 대안을 계발한다.
- 4단계: 대안의 이해득실을 따진다.
- 5단계: 긍정적 대안들 가운데서 골라낸다.

또한 리더는 효과적으로 의사를 전달해야 한다. 전달할 능력이 없으면 지도하지 못한다. 자신의 확신을 명료하게 표현하고 열정적으로 전달할 때 효과가 크다. 전달은 한 사람 또는 한 집단에서 다른 사람 또는 다른 집단에게 이해를 전달하는

[139]John MacArthur, *목회사역의 재발견,* 서원교역(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5), 424.

[140]Ibid., 435.

것을 경험하는 과정이다.

리더는 나름대로 자기 관리방식이 있어서 독특한 지도방식을 확립하여 일관되게 그 방식을 사용해야 한다. 그래야 따르는 사람의 입장에서 혼선이 없이 쉽게 리더를 추종할 수 있게 된다.

유능한 리더에게 반드시 필요한 자질은 열정을 가지고 그 열정을 다른 사람들에게 불어넣어야 한다.  그래서 낙심하고 상처받은 사람들을 고무시키며 열정 있게 사역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환경과 조건과 인간관계는 사람들을 고무시키기보다 실망시키고 좌절하게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해석의 열쇠를 가진 리더는 희망의 이야기, 비전의 이야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하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열정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열정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른다. 열정적인 리더가 있어야 열정적으로 따르는 사람들이 출현하는 법이다. 또한 지도자는 따르는 사람들에게 계속 일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해야 한다. 리더를 따르는 사람들이 성공하리라는 동기부여를 받지 못한다면 리더는 결코 성공하지 못한다.  동기부여가 중요하고 리더 자신이 동기부여의 주도자가 되어 항상 어떻게 동기를 부여할 것인가 스스로 물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리더는 대가를 기꺼이 지불할 수 있어야 한다. 훌륭한 리더는 훈련과 자기희생과 인내와 어려움을 감수하면서 길러진다.  특히 목회는 사람을 다루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이해가 깊지 못하면 목회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모집과 위임이 훌륭한 리더가 될 수 있는 좋은 자질이다. 사람을 모집해서 조직하는 것은 중요하다. 사람들로 하여금 결단하여 자원하게 하고 그 자원자들을 조직하여 사역을 맡기는 일은 모든 리더에게 필수적인 일이다. 위임은 한 사람 또는 한 집단이 권한과 의무와 책임을 다른 사람이나 다른 집단에게 양도하는 것이다.[141] 이러한 위임은 리더십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리더십의 가장 중심적인 것을 행사하는 것이다. 위임은 개인이나 단체로 보나 엄청난 이득을 가져다 준다. 그것은 리더의 일을 경감시켜줄 뿐 아니라 그 일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게 만들며 미래의 새로운 리더를 준비하게 한다. 따라서 위임은 리더와 위임 받는 자와의 일체감과 충성심과 서로간의 유대를 더욱 공고히 해준다.

2) 설교

은혜 받지 않은 목회자는 설교가 어렵다. 목회자 수준의 설교를 구상하기 때문에 어렵게 고민하고 작성한다. 그러나 말씀을 주기적으로 읽게 되면 말씀이 말씀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설교를 구상하고 작성할 수 있다. 변화의 특징은 단순하게 원리를 세울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셨다. 전에 느낄 수 없었던 명료함을 얻게 되어 사람들의 상태와 마음과 성격을 알게 되고, 말씀을 깨닫는 면이나 적용 면에서나 이 전보다 훨씬 수월해졌다. 말씀과 기도생활로 인하여 이전보다 풍부한 자료와 영

---

[141]Ibid., 451.

감을 얻을 수 있게 되고, 반복되는 강의와 수양회 인도를 통하여 강의기술의 발전과 함께 회중을 이끄는 능력이 배가 되었고 확신 있는 설교가 선포됨으로 설교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는 비율이 훨씬 높아지게 되었다.

설교는 목사의 특권이고 무엇보다 목사는 설교에 우선권을 두어야 한다. 설교에는 성경적 기초가 없게 되면 약화되게 된다. 말씀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에 집중하면 설교는 달라진다. 감동이 있는 설교보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존재를 깨닫고 회개하는 심정으로 처음에 받은 소명을 항상 기억한다면 설교자는 겸손하고 강력하게 항상 강단에 설 수 있다.

설교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설교자는 항상 자신의 전달능력을 계발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변화는 메시지나 청중이 바뀌는 것이 아니며 메시지를 전하는 전달자가 바뀌어야 하는 것이다. 설교의 전달능력은 계속 훈련해야 하고 무슨 대가를 치르더라도 반드시 터득해야 하는 일이며 기술이다.

또한 설교자에게 요약하는 기술이 필요하다. 요약을 통하여서 생각이 정리되고 생각이 정리되면 말이 일목요연해진다. 말이 장황하고 설명이 많을 때에는 설교자 자신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설교 방법 중 이전의 3대지 설교를 추천한다. 3대지가 쉬워 보이고 주관적일 위험성이 있지만 3대지만큼 생각을 명확하게 해주는 것을 찾아보기 어렵다. 어떤 일이든 말씀이든 사건이든 3가지로 압축하고 요약할 수 있는 능력은 설교자로 하여금 전달에 있어서 강력한 확신

과 더불어 커다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능력으로 성경을 읽고 성경을 요약하고 그 실력이 축적되게 되면 설교의 관점이 달라지고 설교능력이 일취월장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요약능력을 갖추게 되면 다양한 방법의 설교기술로 인하여 설교가 쉬워질 것이다.

먼저 제목이 없는 설교는 없다. 성도들은 제목에 따라 관심을 갖기도 하고 무관심해지기도 한다. 설교제목은 본문에서 그대로 인용하거나 변형시켜 만들 수 있고 중요 개념을 채택하여 정할 수도 있다.[142] 7가지의 설교제목 설정원칙을 정하였는데

- 성경본문의 내용 중 강조할 구절 자체를 제목으로 선택하라
- 성경본문의 내용 중 강조 문구를 변형시켜 제목을 만들라
- 성경본문으로부터의 중요 개념을 제목으로 설정하라
- 반어법적 의미의 제목을 만들라
- 종교철학적 제목을 창출하라
- 자극적이고 신비적인 제목을 사용하라
- 하나의 주제 아래 여러 가지 다른 소제목으로 가지치기를 하라

---

[142]문성모, *곽선희 목사에게 배우는 설교*(서울: 두란노, 2008), 191.

본 연구자가 설교의 유능성을 개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수행계획을 설정하여 진행하려고 한다.

먼저 앞으로 3개월간 설교에 관한 도서 목록을 작성하여 읽고 연구한다. 그 목록은 다음과 같다.

- 켄트 앤더슨, 설교자의 선택
- 문성모, 곽선희 목사에게 배우는 설교
- 조용기, 4차원 설교
- 로이드 존스, 구약을 이용한 복음설교

  설교와 설교자

  로마서강해
- 유진 로우리, 이야기식 설교구성

  설교자여 준비된 스토리텔러가 돼라
- 해돈 로빈슨, 강해설교

  1인칭 내러티브 설교

  탁월한 설교에는 무언가 있다

  성경적인 설교 준비와 전달

  성경적인 설교와 설교자
- 위어스비, 설교의 정석

  이미지에 담긴 설교

  역동적 설교
- 존 스토트 현대사회문제와 그리스도인의 책임
- Michael Duduit, HANDBOOK OF CONTEMPORARY PREACHING

설교의 방법에 대한 연구를 한다. 다음의 강해설교 본문설교 제목설교 이야기설교 등 설교의 방법을 연구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훈련을 계획한다.

강해설교는 ñ성경본문의 배경에 관련하여 역사적, 문법적, 문자적, 신학적으로 연구하여 발굴하고 알아낸 성경적 개념을 성령께서 우선 설교자의 인격과 경험에 적용하시며 설교자를 통하여 다시 회중에게 적용하시는 것이다ò라고 정의하고 있다.[143] Haddon Robinson은 강해설교를 위해 5가지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 성경본문이 설교를 좌우한다.
- 강해설교는 개념을 전달한다.
- 개념은 본문으로부터 나온다.
- 얻어진 개념은 강해자에게 적용된다.
- 얻어진 개념은 듣는 사람에게 적용된다.

본문설교는 본문 안에서 제목과 내용을 찾고 본문의 영역을 넘지 않는다. 본문 자체가 주제가 되며 설교 내용도 철저하게 본문에 의지해 진행되며 주제와 내용이 성경본문을 벗어나지 않는 설교를 의미한다.

---

[143]Haddon W. Robinson, *Biblical Preaching*, 박영호역(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07), 23.

제목설교는 본문 자체의 내용을 포괄하기 보다는 설교자가 의도하는 테마나 제목에 따라 먼저 제목을 설정한 다음에 이에 따라 성경본문을 선택하게 된다.

이야기설교는 유진 로우리가 주창하는 설교로서 갈등찾기와 분석을 통하여 실마리를 제공하며 복음을 제시하고 결과를 기대하는 방식의 이야기 형태의 설교이다. Thomas Long은 내러티브 설교란 설교학(설교에 대한 신학적 연구)과 수사학(효과있게 전달하는 예술)의 행복한 결혼적 만남이라고 주장한다.[144]

실제로 방법론에 의한 설교를 작성한다. 3개월간 설교계획에 따라 연간 설교계획을 작성하여 실행을 계획하려고 한다.

표 **14.** 목회유능성 향상을 위한 **3** 개월간 설교계획

| 날짜 | 본문 | 제목 |
|---|---|---|
| 4/1 | 마 19:23-26 |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 |
| 4/8 | 민 21:6-9 | 보이는 대로 믿으면 우상됩니다 |
| 4/15 | 마 19:30 | 착한 사람이 더 악해질 수 있습니다 |
| 4/22 | 막5:25-34 | 회복의 세 가지 단계 |
| 4/29 | 신12:13-16 |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마십시오 |

[144]Eugene L. Lowry, *Preaching*(Abingdon Press, 1997), 17.

| 5/6 | 4:19-21 | 천국패스 고전 |
|---|---|---|
| 5/13 | 욥1:6-12 | 물질의 시험과 복 |
| 5/20 | 창22:1-6 | 너는 나에게 무엇을 주느냐? |
| 5/27 | 출16:21-24 | 날마다 새롭게 |
| 6/3 | 삼하6:9-15 | 우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
| 6/10 | 눅6:43-49 | 실천하지 않으면 믿는 것이 아닙니다 |
| 6/17 | 요한복음 6:53-58 | 주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믿음 |

3) 상담

본 연구자는 훈련과정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과 교류하였다. 많은 사람을 만나고 겪게 되면 사람들을 구분할 수 있다. 그것은 사람들의 특징과 형태가 다양하지만 사람들을 이해하고 알아가면서 스스로 터득된다. 상담을 한다는 것은 이론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철저하게 인생의 문제와 해결을 경험하고 사람들이 고민하고 절망과 실의에 빠지는 일들을 꿰뚫어 볼 수 있을 때 그 본질은 정확하게 짚어주고 대안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목회자로서 말씀 가운데 인생의 방향과 해결방법을 제시해 주려고 할 때는 먼저 목회자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전달자로서 바로 서야 하

며 그 기초와 토대가 든든하게 세워질 때 이루어질 수 있다. 인생을 고민하고 아파할 때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우리를 위해 베풀어졌는가를 깨달을 수 있고 그러한 인생의 고난 과정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올바른 신앙지도와 아울러 문제를 신앙으로 극복할 수 있는 확신과 대안을 제시할 있다.

목회상담이란 위기가 초래한 역기능과 파탄 속에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치유를 제공하고자 하는 목회의 회복적인 표현이다.[145] 목사의 도움을 구하는 사람들은 어느 교회나 많다. 사람들이 개인적인 문제를 가지고 제일 먼저 찾아가는 것이 목회자이고 목회자를 통하여 조언을 듣고 해결방법을 찾는다. 따라서 상담에 있어서 학문적으로나 임상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어느 정도 수준 있는 훈련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훈련들은 목회자들의 사역의 비상담적 측면들에 있어서 효율성을 더욱 증가시킬 수 있다. 목회자의 복잡한 일의 역할에 의해서 사람들과의 관계와 의사전달은 상담훈련을 통하여 획득된 감수성과 기술들로부터 더욱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으며 효과 또한 기대할 수 있다.

상담능력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상담에 관련된 서적을 탐독하여 상담에 구체적인 내용과 기술을 습득해야 한다. 상담은 하나의 관계 형성과 그 관계의 계속적인 이용으로 이어지는데 그 관계를 통하여 치유와 회복이 일어난다. 특히 중요한 기술중의 하나는 경청이다. 목회자는 오랫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해 왔다. 상대

---

[145] Howard J. Clinebell, *목회상담신론,* 박근원역(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87), 78.

방에 대한 사려 깊은 공감적 경청의 기술은 목회와 상담에서 필수적인 요소이다.

또한 다음과 같은 기초적인 상담기술을 배우는 것이 필요하다.

- 주의 집중과 관심을 주는 행위- 눈과 눈의 접촉, 관심표명
- 자유로이 생각대로 대답할 수 있는 질문들과 간단한 코멘트나 제스처 사용
- 주의 깊게 관찰하면서 비언어 메시지 관찰
- 초기 단계의 상담에서 화제를 자주 바꾸지 말고 피상담자의 흐름에 추종
- 상담자가 인지하는 대로 중대한 감정들과 논점들을 제기할 때 공감, 반응
- 피상담의 전달 중 주요 요점들을 요약하여 명료화시켜 주고 상담자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점검
- 초점을 맞추어 주는 질문을 통하여 피상담자가 이야기 하지 않은 영역 탐구
- 문제들의 의미와 논점과 역동성들을 이해하고 진단적인 통찰력에 근거하여 도움 받도록 권고

실존적이고 종교적인 요소들은 위기상담 특히 질병, 죽음,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위기에서 자주 표면에 나타난다. 그러한 위기 경험은 인간의 삶의 한계와 취약성에 부딪히게 하며 무자비하게 흘러가버리는 시간을 깨닫도록 하고 순간순간

죽음에 더 가까이 다가가고 있음을 보게 한다. 이러한 때에 종교적으로 더욱 귀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 특히 중년의 시기에는 종교성이 더욱 나타난다.

이러한 실존적이고 종교적인 위기를 깨닫는 때는 목회자의 도움이 절실히 요구된다. 정확하게 인생의 각 단계에서 느끼는 위기와 고독을 짚어주지 못하면 목회자는 외면당하기 싶다. 인생의 각 단계에 대한 연구와 분석을 통하여 각 단계의 고민과 해결을 제시해 줄 때 인생의 문제도 해결 받을 수 있다. 특히 자포자기할 수 있는 노인의 상황과 각 연령대에 맞는 정확한 인식과 돌봄은 노인들로 하여금 회복의 인생으로 마무리할 수 있게 할 것이다.

# VII. 결론

한 사람이 영적인 사람인가 아닌가를 측정하는 기준은 그 사람이 얼마나 빨리 출세나 성공의 길에 올라서느냐 가 아니라 얼마나 빨리 곤경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손을 내뻗느냐 하는 것이다.[146] Donald E. Messer는 직접 고통을 겪어본 사람들만이 자기 주변의 고통 받는 사람들의 아픔을 제대로 인식하고 아픔에 반응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147] 우리의 주변에는 인생의 고난을 이겨낸 노인들이 많다. 사람들에게서 가능성을 보고 그 가능성을 인정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다. 자신의 인생경험을 통하여 사람을 살리는 일에 누구보다 쉽고 효율적으로 감당할 수 있다면 치유 공동체인 교회는 노인들에게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

치유의 공동체는 반드시 건강을 회복시킨다는 것과 동일시 되는 것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치유는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포함할 수 있다.[148] 무엇보다 먼저 상처입은 치유자가 되려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삶의 스토리를 긍정하고 받아들여야 한다. 기독교 공동체란 상처가 치유되고 고통이 완화되기 때문이 아니라 상처와 고통이 새로운 비전을 위한 개방과 기회가 되기 때문에 치유의 공동체가 될 수 있다

[146]Donald E. Messer, 107.

[147]Ibid., 127.

[148]Ibid., 137.

는 점을 우리에게 확신시켜 준다.[149] 삶으로써 이미 검증된 노인들의 경험들이 리더십 훈련과 신앙훈련을 함으로 또 새로운 리더로 만들어가는 일은 생명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즐거운 일이다.

교회는 성장을 추구한다. 이것이 내적이든 외적이든 간에 성장해야 한다는 명제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지나친 외적 성장은 목회자의 카리스마적인 지도력을 요구하게 되며 교회내의 활동력이 약한 노인들에 대해 시혜적 차원에로의 접근을 가능하게 한다. 이것은 노인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어려운 교인들을 차별하는 병폐를 가져오기도 한다. 교회가 바르게 성장하게 위해서는 철저하게 신앙에 근거한 양육과 훈련을 해야 한다. 그래야 고난의 위기 가운데서도 당당하게 맞서 극복할 수 있고 그렇게 극복한 사람만이 또 다른 사람들을 살려내는 일에 앞장설 수 있다. 오늘날 제기되는 대립과 갈등의 구조를 혁신하기 위해 인생경륜과 지혜로 준비된 노인들의 참여가 요구된다. 노인의 역할회복을 통하여 갈등과 대립이 해소되고, 또한 속도경쟁에 치우친 오늘날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본래 교회의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다. 생명을 살려내고 그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살려내는 것을 보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일일 것이다. 이제 그 희망이 교회의 어른인 노인들의 경륜을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소원한다.

---

[149]Henri J. M. Nouwen, 94.

# APPENDICES

## APPENDIX 1: 교인들의 신앙 수준과 변화를 점검하기 위한 설문지

1. 당신은 신념 체계 혹은 가치 체계를 가지고 그 에 따라 행동하십니까?

   □ 그렇다.
   □ 아니다.
   □ 잘 모르겠다.
   □ 대답하지 않겠다 .

2. 다음 항목 가운데 당신이 현재 지니고 있는 가치 혹은 신념을 형성시킨 근본원인은 무엇입니까?

   □ 어린 시절에 교육받은 내용
   □ 당신 자신의 경험
   □ 친구나 동료의 영향
   □ 잘 모르겠다.
   □ 대답하지 않겠다.

3. 당신이 지니고 잇는 가장 기본적인 가치 혹은 신념은 무엇입니까? 간략하게 서술해 주십시오.

(　　　　　　　　　　　　　　　　　　　　　　　　　　　　　　　　　　　)

4. 인생관의 변화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2 년간 당신의 인생관은 얼마나 변했습니까?

   □ 엄청나게 변했다.
   □ 얼마간 변했다.
   □ 거의 변하지 않고 그대로다.
   □ 잘 모르겠다.

□ 대답하지 않겠다.

5. 살다 보면 누구나 직장이나 가정에서 혹은 개인적으로 힘든 시기를 거치게 됩니다. 그럴 때 다음과 같은 생각이 얼마나 도움이 될지 응답해 주십시오. 각각의 항목에 빈칸에 체크해 주십시오.

| 질문 | 매우 도움됨 | 대체로 도움됨 | 아주조금 도움된 | 전혀도 움안됨 | 절대적으 로반대 | 잘 모르겠다 |
|---|---|---|---|---|---|---|
| A. 인생의 어려움이란 사탄의 시험에 불과하다. | | | | | | |
| B. 나보다 더 극심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도 많다. | | | | | | |
| C. 나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이 많다. | | | | | | |
| D. 지금 비록 내가 시련을 당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나를 존경할 것이다. | | | | | | |
| E. 이 시기만 잘 극복하면 더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다. | | | | | | |
| F. 내가 잘못해도 하나님이 용서해주실 것이다. | | | | | | |
| G. 이 문제의 책임자가 누구든지 반드시 벌을 받아야 한다. | | | | | | |
| H. 이 시가가 지나면 반드시 보상을 받을 것이다. | | | | | | |
| I. 목표를 성취하는 데 이 정도 장애는 불가피하다. | | | | | | |
| J. 내 친구이신 하나님께서 항상 | | | | | | |

| | | | | | | |
|---|---|---|---|---|---|---|
| 동행하실 것이다. | | | | | | |
| K. 나는 책임자로서 이 상황을 타개해 나가야 한다. | | | | | | |
| L. 객관적인 상황은 그렇지 않은데 내 생각과 느낌만 괜히 심각한 것 같다. | | | | | | |
| M. 책임자에게 보복해야 한다. | | | | | | |
| N. 내가 잘못해도 교회에서 나를 이해해줄 것이다. | | | | | | |
| O. 옳다고 생각한 것을 끝까지 밀고 나가면 상황은 호전될 것이다. | | | | | | |
| P. 사람은 누구나 어려운 시기를 지나는 법이다. | | | | | | |
| Q. 나는 전에도 이런 시기를 잘 헤쳐나간 적이 있다. 따라서 이번에도 잘 해낼 것이다. | | | | | | |
| R. 가만히 기다리면 사태가 곧 호전될 것이다. | | | | | | |
| S. 이 기회를 통하여 타성에 젖은 생활방식을 쇄신하고 인생에 대해 좀 더 깊게 생각하게 되어 좋다. | | | | | | |
| T. 하나님의 은혜만을 전적으로 신뢰하자. | | | | | | |
| U.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실 것이다. | | | | | | |
| V. 세상을 넓게 보면, 지금 눈앞에 닥친 문제가 별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 | | | | | |

| | | | | | | |
|---|---|---|---|---|---|---|
| W. 내가 이런 시기를 통하여 다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고 그들을 배려하게 된다면, 인생의 어려움이라는 것도 그리 나쁘지 않은 것 같다. | | | | | | |
| X. 만일 사람들이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포기했다면, 인류는 아무 것도 이룩하지 못했을 것이다. | | | | | | |
| Y.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 시기를 극복하도록 지금 나를 돕고 있다. | | | | | | |
| Z. 나는 세상 경험이 많으니까 이런 어려움 정도는 능히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 | | | | | |
| AA. 누군가는 반드시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한다. | | | | | | |
| BB. 나는 옳은 일만 하겠다. | | | | | | |
| CC. 인생이란 고해와 같은 것, 어려운 시기를 통하여 고달픈 인생에서 한 수 더 배우는 것이다. | | | | | | |

6. 당신의 신앙심에 대해 질문합니다. 당신은 스스로 신앙심이 깊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신앙심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눈금 1 은 ñ신앙심이 없다.ò눈금 5 는 ñ신앙심이 깊다ò를 의미합니다. 체크해 주십시오.

1 □ 2 □ 3 □ 4 □ 5 □

7. 당신은 다음 진술에 동의 하십니까? 항목에 따라 ñ절대적으로 동의한다ò, ñ대체로 동의한다ò, ñ대체로 반대한다ò, ñ절대적으로 반대한다ò로 응답해 주십시오.

| 질문 | 절대적으로 동의 | 대체로 동의 | 대체로 반대 | 절대적으로 반대 | 잘 모르겠다 | 응답하지않겠다 |
|---|---|---|---|---|---|---|
| A. 주변의 모든 일이 엉망진창으로 돌아가더라도 내 삶은 여전히 가치 있다. | | | | | | |
| B. 나는 주변에서 발생하는 많은 일들에 적응하기 어렵고, 그것들이 내 삶에 무슨 의미를 갖는지도 모르겠다. | | | | | | |
| C. 가끔 인생이란 것이 살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 의구심이 들 때가 있다. | | | | | | |
| D. 우리는 주변에서 발생하는 일들을 모두 이해하지는 못한다. 하지만 세상사 모든 것들이 나름대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은 확신할 수 있다. | | | | | | |
| E. 나는 세상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들에 우연이란 있을 수 없다고 믿는다. | | | | | | |
| F. 나는 믿음에 확신이 없다. | | | | | | |
| G. 종교는 사람들을 초자연적인 힘에 의지하게 만들어 종종 인류의 발전을 저해한다. | | | | | | |
| H. 신앙심이 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할 수 있다. | | | | | | |
| I. 세상의 법에 관계없이 자신의 양심에 따라 사는 것이 최선이다. | | | | | | |

| | | | | | | |
|---|---|---|---|---|---|---|
| J. 나는 비극적인 사건과 맞닥뜨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과 장래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려고 노력한다. | | | | | | |
| K. 인생을 가장 멋지게 사는 방법은 바로 매일 부딪치는 문제들을 그때그때 처리하고 ó삶ộ, ó죽음ô등 심각한 문제들에 대해 지나치게 걱정하지 않는 것이다. | | | | | | |

8. 당신은 지난 12 개월 동안 다음과 같은 일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 질문 | 있다 | 없다 | 잘 모르겠다 | 응답하지 않겠다 |
|---|---|---|---|---|
| A. 자선단체에 돈을 기부했다. | | | | |
| B. 종교단체에 헌금했다. | | | | |
| C. 수재의연금을 냈다. | | | | |
| D. 특정 정당에 정치 후원금을 보냈다. | | | | |
| E. 가난한 사람들과 사회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시간을 투자하여 봉사활동을 했다. | | | | |
| F. 종교적인 일에 시간을 투자하여 봉사활동을 했다. | | | | |
| G. 인생의 가치와 실천에 대해 토론하는 모임에 참여했다. | | | | |

| H. 구체적인 기도제목으로 기도했다. | | | | |
|---|---|---|---|---|
| I. 인생관이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정신적으로 교류했다. | | | | |
| J. 인생의 기본적인 가치를 다룬 책을 읽었다. | | | | |
| K. 친목회 혹은 상조회에 참석했다. | | | | |

9. 당신은 다음 진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ñ동의한다ò, ñ반대한다ò로 응답해 주십시오.

| 질문 | 동의 | 반대 | 잘 모르겠다 | 응답하지 않겠다 |
|---|---|---|---|---|
| A. 이 세상에 단 하나의 참 종교란 없다. 하지만 세상의 주요 종교에는 나름대로 진리와 의미가 있다. | | | | |
| B. 이 세상에는 단 하나의 참 종교만 있을 뿐, 다른 종교들은 참 종교가 아니다. | | | | |
| B. 이 세상에는 단 하나의 참 종교만 있을 뿐, 다른 종교들은 참 종교가 아니다. | | | | |

10. 당신은 인생의 의미를 반추하며 얼마나 자주 묵상하십니까?

☐ 매일

☐ 일주일에 몇 번

☐ 일주일에 한 번 정도

☐ 한 달에 몇 번

☐ 한 달에 한 번 혹은 그 미만

☐ 결코 그런 적이 없다.

☐ 잘 모르겠다

☐ 대답하지 않겠다

11. 당신은 하나님께 기도해본 적이 있습니까?

☐ 있다

☐없다.

☐ 잘 모르겠다

☐ 대답하지 않겠다

12. 11)번 문항에 ñ있다ò라고 대답한 분만 응답해 주십시오. 그렇다면 당신은 지난 일주일 동안 몇 번이나 기도했습니까?

☐ 하루에 세 번 혹은 그 이상

☐ 하루에 두 번 정도

☐ 하루에 한 번

☐ 하루에 한 번도 잘 못함

☐ 일주일에 두세 번

☐ 일주일에 한 번 정도

☐ 한 달에 두세 번

☐ 한 달에 한 번

☐ 기타

☐ 잘 모르겠다

☐ 대답하지 않겠다

14. 당신은 교회 예배에 얼마나 자주 참석하십니까?

☐ 일주일에 한 번 이상
☐ 일주일에 한 번
☐ 한 달에 두세 번
☐ 한 달에 한 번 혹은 그 미만
☐ 특별한 절기에만 나감
☐ 전혀 나가지 않음
☐ 잘 모르겠다
☐ 대답하지 않겠다

15. 다음의 진술은 하나님에 대한 당신의 생각과 얼마나 가깝습니까? 항목에 따라 ñ매우 가깝다ò, ñ대체로 가깝다ò, ñ가깝지 않다ò, ñ전혀 가깝지 않다ò로 응답해 주십시오.

| 질문 | 매우 가깝다 | 대체로 가깝다 | 가깝지 않다 | 전혀 가깝지 않다 | 잘 모르겠다 | 응답하지 않겠다 |
|---|---|---|---|---|---|---|
| A. 어쩌면 하나님이 존재할 지 모른다. 하지만 확인할 방법이 없다. | | | | | | |
| B.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 | | | | | |
| C.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 | | | | | |
| D.나는 하나님이란 말이 듣기 거북하다. 하지만 초자연적인 존재 혹은 초월적인 존재를 | | | | | | |

| 믿는다. | | | | | | |
|---|---|---|---|---|---|---|
| E.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그 사실을 의심하지 않는다. | | | | | | |
| F.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ō도덕률ō을 불어넣으셨고, 우리는 지금 그 도덕률을 따라 살고 있다. | | | | | | |
| G.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다. 따라서 지금 우리는 그 율법을 따라 살아야 한다. | | | | | | |
| H.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죄인들의 영혼을 구원하신다. | | | | | | |
| I. 하나님이란 인간들이 만든 ō관념ō에 불과하다. 따라서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아도 상관없다. | | | | | | |

16. 어떤 사람들은 성(性), 도덕, 가족 간의 유대관계, 종교 같은 문제에 대한 전통적인 가치를 강하게 고집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당신의 태도에 대해 질문합니다. 눈금자에는 1 에서 5 까지 눈금이 매겨져 있습니다. 눈금 1 은 이런 문제에 대해 매우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가치ō를 지닌 사람들을 나타내고, 눈 5 은 ō전통에 얽매이지 않은 자유분방한 가치ō를 지닌 사람들을 나타냅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성, 도덕, 가족 간의 유대관계, 종교의 문제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갖고 있습니까?

1 □ 2 □ 3 □ 4 □ 5 □

17. 다음 30 가지 진술내용이 당신의 생각과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 0 에서 5 까지 당신에게 해당되는 숫자를 사용하여 응답해 주십시오.

용례) 0 은 ñ전혀 일치하지 않는다.ò

1 은 ñ거의 일치하지 않는다.ò

2 는 ñ별로 일치하지 않는다.ò

3 은 ñ아주 조금 일치한다.ò

4 는 ñ대체로 일치한다.ò

5 는 ñ전적으로 일치한다.ò

_____ A. 나는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 존재한다.

_____ B. 나는 성경의 하나님이 본질은 하나이시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위격이 있음을 믿는다.

_____ C. 나는 내가 지금까지 한 일이나 지금 하는 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믿는다.

_____ D. 나는 성경이 내 언행심사를 통제하는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믿는다.

_____ E. 나는 하나님께서 내 삶에 ㅈㄱ극적을 관여하고 계시다고 믿는다.

_____ F. 나는 하나님께 매일 감사를 드린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으 하나님이 되어 주셨고, 내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다.

_____ G.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에 으뜸으로 모시기 원한다.

_____ H. 나는 생활의 지침을 얻기 위해 규칙적으로 성경을 묵상한다.

_____ I. 나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써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기 원한다.

_____ J. 나는 예수 그리ㅡㅅ도를 위해서라면, 내 인생의 모든 중요한 것들을 기꺼이 버릴 각오가 되어 있다.

_____ K. 나는 주변의 모든 일이 잘 돌아가지 않을 때라도, 내적으로 만족한다.

_____ L. 신앙을 위한 일이라면, 사람들의 시선은 아무래도 상관없다.

_____ M. 나는 내 혀를 제어할 수 없다.

_____ N. 나는 내적으로 평안하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평화를 주셨기 때문이다.

_____ O.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신다면, 나는 아무리 천한 일이라도 기꺼이 할 수 있다.

_____ P. 하나님께서는 내게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라는 소명을 주셨다.

_____ Q. 나는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복음전도를 명령하셨기 때문이다.

_____ R. 나는 기독교인들이 물질을 탐하는 탐욕적인 삶이 아니라 희생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고 믿는다.

_____ S. 나는 진실한 신자들의 모임, 그것이 바로 교회라고 믿는다.

_____ T. 나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신다고 믿는다. 따라서 나 또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해야 마땅하다고 믿는다.

_____ U. 나는 지금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다.

_____ V. 나는 내 행도에 대해 내가 책임져야 한다고 믿는다.

_____ W. 나는 지금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여 이웃을 위해 봉사하고 있다.

_____ X. 나는 금전지출 항목 가운데 최우선은 하나님의 사업을 돕는 것이다.

_____ Y. 나는 불신 친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게 해달라고 매일 기도한다.

_____ Z.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그래서 이제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도 기꺼이 용서할 수 있다.

_____ AA. 나는 절대 불평하지 않는다.

_____ BB. 주변 사람들이나 환경이 나를 아무리 자극한다고 해도 나는 마음의 평정을 잃지 않는다.

_____ CC. 나는 내 소유가 아닌 물질은 결코 취하지 않는다.

_____ DD. 나는 격려와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자상하게 말을 건넨다.

APPENDIX 2: 양육반 지원서

# 양육반 지원서

성 명 : 영 문 :

집전화 : 휴대폰 :

주 소 :

※ 양육반을 지원하기 원하시는 분은 다음 항목에 ○ · x로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1. 주일 낮예배를 비롯한 정기적인 예배에 꼭 참석할 수 있습니까? (      )
2. 양육도중 어떠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감당하겠습니까? (      )
3. 양육받을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 (      )

본인의 영적성장을 위하여 제 _____ 기
12주 양육반을 신청합니다.

2011년 ______월 ______일

신청자_______________ 서명___________

**에셀장로교회 귀하**

APPENDIX 3: 리더수양회 진행표

# 리더 수양회 진행

2010. 9. 1.

**지 침 (인사) 오늘 느낌이 옵니다.**

1. 수양회 도중 집에 간다거나 수양회 장소를 이탈하는 일은 금합니다.
2. 가정이나 직장 등 모든 염려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3. 셀폰은 모두 걷습니다.
4. 정해진 순서에 따라 진행이 되도록 시간을 지켜 주십시오. 〈절대 긍정, 절대 감사〉
5. 은혜스런 수양회가 되도록 서로가 섬겨야겠습니다.
6. 사용한 장소는 깨끗이 정리해 주십시오.
7. 강의도중 화장실에 간다거나 밖으로 나가는 일을 삼가십시오.
8. 몸이 아프다거나 다급한 일이 생겼을 경우 조장에게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9. 강사이신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10.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Workshop 진행요령**

1. 수양회 당일 오전 8:30까지 출석하여 지각이 없도록 챙겨서 정확하게 오전 9시에 출발하도록 한다.
2. 수양회는 교회전체 행사이므로 공동체를 떠나 진행팀의 지시에 적극 협조한다.
3. 워크샵 진행방법
   ① 첫 번째, 두 번째, 네 번째 워크샵 - 조별 적용 나눔
   ② 조별나눔시 조장의 역할은 사회를 보는 것이므로 가르치려고 하지 않는다.
   ③ 조별나눔 시간은 20분이므로 시간을 효과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④ 조별나눔후 기도로 마무리하되 다른 조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배려한다.
4. 진행시간을 지킨다.
5. 문제나 사고가 생겼을 경우에는 즉시 진행팀에게 보고한다.
6. 수양관 이탈은 허락되지 않으며 개인행동은 금한다.
7. 강의 시작전 셀폰은 모두 수거한다.

@Stony Point Center

| 진행 시간 | 내 용 | 담 당 자 | 비 고 |
|---|---|---|---|
| 8:00AM - | 교회에서 출발 | | |
| 10:00 - 10:25 | 경배와 찬양 | 찬양팀 | |
| 10:25 - 10:30 | 오리엔테이션 | 진행담당 | 조 편성, 진행지침,<br>*조와 조장은 현장에서 발표 |
| 10:30 - 11:30 | 강의1 **하나님은 당신을 부르신다.** | 조재원목사 | |
| 11:40 - 12:00pm | 1과 Workshop | 조 장 | |
| 12:00 - 01:00 | 점심 식사 | | 지혜롭게 시간 사용 |
| 01:00 - 01:30 | 공동체훈련 | 진행담당 | |
| 01:30 - 01:40 | 경배와 찬양 | 찬양팀 | |
| 01:40 - 02:30 | 강의2 **셀그룹의 가치** | 조재원목사 | |
| 02:30 - 02:50 | 2과 Workshop | 조 장 | |
| 02:50 - 03:00 | 휴식 시간 | 진행담당 | |
| 03:00 - 03:10 | 경배와 찬양 | 찬양팀 | |
| 03:10 - 04:00 | 강의3 **열린모임 인도법** | 조재원목사 | |
| 04:00 - 04:20 | 3과 Workshop | 조 장 | |
| 04:20 - 04:30 | 휴식 시간 | 진행담당 | |
| 04:30 - 04:40 | 경배와 찬양 | 찬양팀 | |
| 04:40 - 05:30 | 강의4 **주님이 쓰시는 셀리더** | 조재원목사 | |
| 05:30 - 05:50 | 4과 Workshop | 조 장 | |
| 05:50 - 06:50 | 저녁식사 | | 지혜롭게 시간 사용 |
| 06:50 - 07:20 | 경배와 찬양 | 찬양팀 | Meditation Space에서 |
| 07:20 - 08:10 | 강의5 **영적인 분위기를 장악하라** | 조재원목사 | |
| 08:10 - 09:00 | 은혜의 강가로 | 조재원목사<br>찬양팀 | |
| 09:00 - 09:20 | 소감문 쓰기 | 진행담당 | |
| 09:20 - 10:00 | 은혜 나누기(간증) | 진행담당 | 받은 은혜 나눔 |
| 10:00PM - | 짐정리, 귀가 | 진행담당 | |

*위 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에셀장로교회**

# BIBLIOGRAPHY

A. 한국서적


고양곤외, *한국교회와 노인목회*,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5.

김재성, *바울 새로보기*,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2000.

김중은, *한국교회와 노인목회*,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5.

김형태, *목회문화*,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6.

문성모, *곽선희목사에게 배우는 설교*, 서울: 두란노, 2008.

박재간외, *고령화 사회의 위기와 도전*,서울: 나남출판, 1995.

성규탁, *새시대의 효*,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1995.

송성자, *가족관계와 가족치료,* 서울: 홍익재, 1995.

윤진,성인,*노인심리학*, 서울: 중앙적성출판사, 1997.

이원규, *종교사회학*,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91.

이장호, *상담심리학*, 서울: 박영사, 1994.

이형원, 김용복외 *교회와코이노니아*, 한국기독교학교회편,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3.

장인협,최성재, *노인복지학*,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2.

정태기, *위기와 상담*, 서울: 크리스찬 치유목회연구원, 1998.

한성열, *노년기의 의미와 즐거움,*서울: 학지사, 2000.

B. 번역서적

Boff, Leonardo. *새롭게 탄생하는 교회*, 김쾌상역, 서울: 성요셉출판사, 1987.

Brown, Robert M. *영성과 해방*, 백상열역,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96.

Bruce, A.B. *열 두 제자훈련*, 김영봉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4.

Buber, Martin. *나와너*, 표재명역, 서울: 문예출판사, 1993.

Carson Pue, *실전 멘토링*, 서진희역,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서울, 2008.

Chambers, Oswald. *죄의 철학*, 스데반황역, 서울: 토기장이, 2011.

Clinebell, Howard J. *목회와 지역사회*, 오성춘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4.

_______. *목회상담신론*, 박근원역,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87.

_______. *목회와 지역사회*, 오성춘역,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4.

_______. *부부성장과정,* 이종헌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Clinton, Richard. & Leavenworth, Paul. *평생사역을 꿈꾸는 리더*, 임종원역, 서울: 도서출판진흥, 2006.

Collins, Gary.*크리스천 코칭*, 정동섭역, 서울: IVP, 2001.

de Beauvoir, Simone.*노년,* 서울: 책세상, 1994.

Fiorenza, Elisabeth S. *동등자 제자직*, 김영애역, 서울: 태조출판사, 1993.

Freire,  Paulo. *실천 교육학*, 김쾌상역, 서울: 일월서각, 1986.

_______. *페다고지,* 성찬성역, , 광주: 광주출판사1991.

Nouwen, Henri J. M. *상처입은 치유자*, 이봉우역, 왜관: 베네딕트출판사,1990.

Horsley, Richard. *예수운동*, 이준모역,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93.

Johnson Eliszabeth S. and Williamson ,John B. *Growing Old: The Social Problems of Aging*, NY: Holt, Rinehart and Winston, 1980.

Kim, Paul K. H. *노인복지의 이해*, 문인숙역, 서울: 홍익재, 1995.

Küng, Hans. *교회란 무엇인가*, 이홍근역, 서울: 분도출판사, 1978.

MacArthur, John. *목회사역의 재발견,* 서원교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5.

Messer, Donald E. *새시대 새 목회,* 이면주역, 서울: 기독교 대한감리회 홍보출판국, 1990.

Min, Byunggap*, Aisian Americans*, ñKorean Americansò,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1995.

Moltmann,  Jurgen. *생명의 영,* 김균진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2.

_______. *오늘의 신학 무엇인가?,* 차옥숭역,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_______. *오시는 하나님*,  김균진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6.

Robinson, Haddon & Larson, Craig B. 성경적인 설교자, 서울: 두란노, 2006.

Robinson, Haddon. *강해설교*, 박영호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07.

Russell,  Letty M. *파트너쉽과 교육*, 손승희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Solle, Dorothee *현대신학의패러다임*, 서광선역, 서울: 현대신학연구소, 1993.

Wind, James P. *현대 성직자 윤리*, 김성민.정지련공역, 서울: 정암문화사, 1992.

Wright, Walter C. Jr. *관계를 통한 리더십*, 양혜정역, 서울: 예수 전도단, 2002.

C. 외국서적

Arliss, Laurie P. *Gender Communication*, Prentice-Hall, Inc., Englewood Cliff, NJ, 1991

Baldoni, John *Great Communication Secrets of Great Leaders*, McGraw-Hill, 2003

Barker, Larry L. & Wahlers, Kathy J. & Cegala Donald J. & Kibler, Robert J. *Groups in Process*, 2nd Edition, Prentice-Hall, Inc., Englewood Cliff, NJ, 1983

Choi, Namkee G. *Social Work Practice with the Asian American Elderly*, The Haworth Social Work Practice Press, Binghamton, NY, 2001

Couture, Pamela D. & Hunter, Rodney J. *Pastoral Care and Social Conflict*, Abingdon Press, 1995

Cox, Barbara J. & Waller, Lois Lord. *Bridging the Communication Gap with the Elderly*, American Hospital Publishing, 1991

Cox, Enid O. & Parsons, Ruth J. *Empowerment-Oriented Social Work Practice with the Elderly*, Wadsworth, Inc., Belmont, CA, 1994

Crandall, Ron *Turn Around Strategies for the Small Church*, Abingdon Press, Nashville, TN, 1995

Cushman, Donal P. & Cahn, Dudley D. Jr., *Communication in Interpersonal Relationships*,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Albany, 1985

Eisenberg, Eric M. & Goodall, H. L. Jr., *Organizational Communication*, 3rd Edition, Bedford/St. Martin's, Boston, 2001

Erikson, Erik H & Erikson, Joan M & Kivnick, Helen Q. *Vital Involvement in Old Age*, W.W. Norton & Company Inc., New York, 1986

Fisher, roger & Ury William *Getting to Yes*, Penguin Books, Boston, 1983

Frey Lawrence R & Barge, J. Kevin edited, *Managing Group Life Communicating in decision-Making Groups*, Houghton Mifflin Company, Boston, New York, 1997

Goss, Blaine & O'Hair Dan. *Communicating in Interpersonal Relationships*, Macmillan Publishing Company, New York, NY, 1988

Harris, thomas E. & Sherblom, John C. *Small Group and Team Communication*, 2nd Edition, Allyn & Bacon:Boston, 2002

Hauerwas, Stanley & Stoneking, Carole Bailey & Meador, Keith G. & Cloutier, David *Growing Old in Christ*, Wm. b. Eerdmans Publishing Co., Grand Rapids, Michigan, 2003

Hunt, June. *Aging: Wisdom for the Winter Years*(Dallas TX: Hope for the Heart, 2008

Johnson, Elizabeth S. & Williamson, John B. *Growing Old: The Social Problems of Aging*, Holt, Rinehart and Winston, 1980

Keith, Jennie. *Old People New Lives*, 2nd Editi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Chicago, 1982

Kloser, Christine. *Inspiration to Realization*, Love Your Life, Los Angeles, CA, 2004

Knight, Bob G. Outreach with the Elderly, New York University, 1989

Kosberg, Jordan I. *International Handbook on Services for the Elderly*, Greenwood Press, Westport, CT, 1994

Kubler-Ross, Elisabeth *On Death and Dying*, First Touchstone Edition, Simon & Shcuster, Inc., New York, NY, 1997

Lewin, Kurt. *Resolving Social Conflicts & Field Theory in Social Scienc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Washington, DC, 2000

Lubinski, Rosemary & Higginbotham, D. Jeffery, *Communication Technologies for the Elderly*, Singular Publishing Group, Inc., San Diego, London, 1997

Messer, Donald E. *A Conspiracy of Goodness*, Nashville, TN: Abingdon Press, 1992.

Min, Pyong *Gap Changes and Conflict*, Allyn and Bacon, 1998

O'Connell, Vincent & April *Choice and Change*, Prentice-Hall, Inc., Englewood Cliff, NJ, 1974

Ordy, J. Mark & Brizzee, Ken R. edited, *Sensory Systems and Communication in the Elderly*, Raven Press, New York, 1979

Patton, John. *Pastoral Care in Context,* Westminster/John Knox Press, Louisville, Kentucky, 1993

Ray, Michael & Myers, Rochelle. *Creativity in Business, Doubleday*, New York, NY,

1989

Reardon, Kathleen K. *Interpersonal Communication Where Minds Meet*, Wadsworth Publishing Company, Belmont, California, 1987

Renz, Mary Ann & Greg, John B. *Effective Small group Communication*, Allyn & Bacon:Needham Heights, Massachuseets, 2000

Shneidman, Edwin S. *Death: Current Perspectives*, 2nd Edition, Mayfield Publishing Company, 1980

Silverman, Philip. *The Elderly as Modern Pioneers*, Indiana University Press, 1987

Stech, Ernest L. *Leadership Communication*, Nelson-Hall Inc., Chicago, 1984

Taira, Ellen D. *Community Programs for the Depressed Elderly*, The Haworth Press, New York, 1987

Thau, Richard D. & Heflin Jay S. *Generations Apart: Xers vs. Boomers vs. the Elderly*, Prometheus Books, Amherst, NY, 1997

Ulatowska, Hanna K. edited, *The Aging Brain: Communication in the Elderly*, College-Hill Press, San Diego, CA, 1985

Wellins, Richard S. & Byham, William C. & Wilson Jeanne M. *Empowered Teams*, Jossey-Bass Inc., Publishers, San Francisco, CA, 1991

Whybrow, Ruth *Caring for Elderly Parents*, The Crossroad Publishing Company, New York, 1996

D. 사전류

Harris, J.G. *The Anchor Yale Bible Dictionary*, D.N. Freedman, Ed.., New York: Doubleday, 1996.

E. 인터넷 자료

U.S.CensusBureau,StatisticalAbstractoftheUnitedStates: 2012년통계자료.

http://www.census.gov/prod/2011pubs/12statab/pop.pdf